일화로 보는 위인상

6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

일화로 보는 위인상

6

책을 내면서

위인은 어떤 사람인가. 보통사람과 구별되는 위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에 단마디로 대답할수는 없다.

인류력사의 갈피갈피에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사와 함께 시대와 사회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어온 수많은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여있다.

동서고금의 문인들은 이러한 위인들의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위인전을 써냈다.

그러나 위인의 업적을 전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것은 위인의 세계가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보통인물과는 대비도 안되게 특출하기때문일것이다.

21세기의 오늘 인류사에 새로운 위인전을 새겨가는 위인은 누구인가.

세계의 시선이 지구상의 동방조선에, 조선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희세의 위인께 쏠리고있다.

세계정치계의 젊으신 국가령도자, 그러면서도 그처럼 당당하고 그처럼 거침없으며 그처럼 여유작작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야말로 현시대의 으뜸가는 위인이시다.

우리 공화국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기적적인 사변들이 그렇게 말하고있다. 세계가 그렇게 보고있다.

력사의 그 어느 정치가도 내세우지 못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담대한 목표, 거창한 실천은 우리 겨레,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를 놀래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적인 풍모는 시대를 격동시키는 수많은 일화들을 낳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모습에서 우리 인민들과 진보적인류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이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

한 높이에 있으며 그이의 사상과 령도가 얼마나 거대한 폭과 심도를 가지고있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겨가시는 령도의 자욱자욱마다에는 시대를 장중히 울리는 진리가 있고 력사와 인류의 키를 크게 하는 영원한 활력이 있다. 아울러 력사와 시대를 선도하고 민족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가는 걸출한 성인의 비범한 위인상이 비껴있다.

편집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의 자욱따라 이 땅에 무수히 새겨지는 일화들중의 일부를 묶어 《일화로 보는 위인상》(6)을 내놓는다.

차 례

1

2

1

인민을 억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럽없이 잘살게 하는것은 자신의 제일사명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인민들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다 있다고 하시며 낮이나 밤이나 인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멸사복무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동서고금의 그 어느 위인도 지니지 못한 특유의 인민관을 지니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거룩한 발걸음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정이 그대로 넘쳐흐르는 절세위인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새겨지는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는 얼마나 많은 사랑의 전설들이 태여났던가.

□ 세상에 소문난 대청리마을

은파군 대청리라고 하면 아마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것이다. 그러던 대청리가 오늘은 조국인민들은 물론 온 세상이 다 아는 고장으로 되였다.

위대한 어버이의 열화같은 사랑속에 수재민들이 재난을 당했지만 불행을 모르고 살았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꽃펴난 곳, 그토록 짧은 기간에 어제날의 시대적락후성과 큰물피해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수 없게 사회주의선경을 펼친 영광의 땅이 바로 대청리이다.

아직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대청리의 가슴뜨거운 사연들은 만사람을 얼마나 크게 감동시키고있는것인가.

농장원들에게 하신 인사

주체109(2020)년 8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친히 운전대를 잡으시고 큰물이 채 찌지 않은 은파군 대청리로 야전차를 달리시였다.

경애하는 그이를 따라설수록 일군들은 격정에 목이 꽉 메여왔다.

전날 몸소 은파군의 책임일군에게 전화를 거시여 인민들의 생명안전, 생활상문제부터 제일먼저 물어주시고 그달음으로 현지에까지 나오시여 큰물피해상황을 료해하시며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사랑의 특별조치들을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러시고도 피해지역 인민들에 대한 걱정으로 한밤을 꼬박 지새우시고 정녕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또다시 그 험한 곳을 찾아주시였던것이다.

피해를 많이 입은 곳들에 한번 가보자고, 아무리 길이 험하여도 피해상황이 어떤지 직접 돌아보아야 하겠다고 결연히 말씀하시며 발목까지 잠기는 감탕길도 주저없이 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렇듯 눈물겨운 헌신의 자욱자욱을 새기시며 수재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한 은정어린 조치를 거듭 취해주신 원수님께서 귀로에 오르시였을 때였다.

폭우에 의해 여기저기 물웅뎅이들이 나있는 곳을 헤쳐나가던 그이의 야전차는 그만 길섶의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였다.

심하게 기울어지는 야전차, 거듭 공회전하는 차바퀴, 그럴수록 더욱 지쳐내리는 차체…

그 순간 어느 누구보다 가슴옥죄여든것은 은파군의 책임일군이였다.

이 험한 판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것만도 세상에 다시없을 죄되는 일인데 야전차까지 빠지였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는 한달음에 야전차로 달려가 어깨를 들이밀었다.

허나 몇 안되는 일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수 없었다.

천금같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시간이 분분초초 흐를수록 일군들은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10여명의 농장원들이 어푸러질듯 달려왔다.

그렇게 달려와서는 온통 흙탕물로 얼룩진 야전차를 보고는 너무도 억이 막혀 울음조차 터치지 못하고 그대로 진창속에 몸을 던졌다.

북받치는 오열을 삼키며 야전차를 힘껏 떠밀기를 그 몇번…

한참이나 신고해서야 야전차는 빠져나왔다.

그제서야 다소 마음을 진정한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시선을 마주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바로 그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차문을 열고 내리시더니 정말 수고들 하였다고, 고맙다고 하시며 몸소 인사를 하시는것이였다.

순간 농장원들은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자연의 광란이 휩쓸고간 땅에 누구보다 먼저 찾아오시여 그토록 열과 정을 부어주신 원수님. 베푸신 하늘같은 은혜에 미처 감사의 인사조차 변변히 올리지 못하였는데 오히려 그이께서 고맙다고 하시니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였으랴.

너무도 뜻밖이고 꿈만 같은 일이여서 일순간 굳어졌던 농장원들은 북받치는 감격을 터치며 《만세!》의 환호를 올리였다.

얼마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야전차는 서서히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목청껏 환호를 올리며 그냥 야전차를 따라서는 대청리 농장원들을 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시여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몇번이나 차를 멈춰세우시였다.

격정의 눈물로 바래워드리는 농장원들의 모습을 뒤에 남기고 야전차를 달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잠시후 차를 멈추시고 절절하신 음성으로 오늘 차가 진창에 빠지다보니 인민들을 도와주러 왔다가 오히려 신세를 지고 간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심장은 터질듯 세차게 설레였다.

그 어느 력사의 갈피에 이런 사실이 있어보았는가.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끝없는 심혈과 로고,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을 펼쳐놓는다면 그대로 바다가 되고 쌓으면 저 하늘끝에 닿으련만 너무도 응당한 일을 한 인민들의 수고를 신세로 여기시며 고마워하시니 세상에 경애하는 원수님 같으신분이 어디에 또 있을것인가.

대청리 농장원들에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사!

이 이야기는 인민을 하늘로 여기시는분, 인민들의 소박하고 깨끗한 마음에 접하실 때마다 그리도 가슴뿌듯해하시며 그 진정을 이 세상 가장 귀중한 재부로 여기시는 위대하신 어버이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적성품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전설로 길이 전해질것이다.

하늘도 감복하였는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청리를 두번째로 찾으시였을 때였다.

어느한 작업반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르시여 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진창을 밟으시며 마을로 향하시였다.

작업반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원수님을 만나뵙게 되였다는 기쁨

보다도 이처럼 험한 곳에 그이를 모시게 되였다는 자책으로 마음을 진정시킬수 없었다.

그들이 올리는 인사를 받으시며 그이께서는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큰물피해상황이 실지 어떤지 알아보러 왔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인명피해사고는 없었는가고 물으시였다.

군당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따라 미리 대피하였기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작업반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어디이며 그곳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곳으로 갈수 있는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료해하시였다.

바로 이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시였다는 소식을 뒤늦게야 전달받은 군책임일군이 도착하여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일군이 올리는 인사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가고, 생각보다 물이 빨리 빠지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물이 생각외로 빨리 빠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올리는 일군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피해가 생각보다 적을것같다고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시였다.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되면 알곡소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것같습니다. 비배관리만 잘하면 거의 옹근 소출을 낼수 있을것같습니다.》라고 또다시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명피해도 없고 농경지도 오래동안 침수되지 않았으니 그만하면 다행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이 당한 불행을 두고 당에서 하도 걱정하니 하늘도 감복하여 우리를 돕는것같다고 진정어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논벼는 3일동안 물에 잠겨있으면 수확고가 많이 떨어지는데 물도 인차 빠지고 아직 이삭도 패지 않았으므로 수확고에 큰 영향은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영양관리를 잘하면 일없을것같다고, 논벼에 감탕도 얼마 묻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런것을 보면 물이 깨끗하게 빠졌다고 기쁨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은파군책임일군과 대청리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동무들은 해당 부문 일군들과 합심하여 큰물피해를 입은 인민들의 생활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피해복구사업을 잘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해 가을 대청리에 풍작이 들었다. 그처럼 모진 자연의 광란이 휩쓴 논밭에서 옹근 소출이 났다.

대청리는 물론 은파군일대의 여기저기에서 이를 두고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수많이 퍼져 전해졌다.

《하늘도 감복하여 큰물났던 대지에 복을 가져다주었는가.》

《절세위인의 진정에 하늘도 머리숙였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은 하늘도 울리고 산천초목도 울린다.》

인민이 당하는 불행을 두고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며 때식도 건느시고 밤잠도 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사랑하는 인민들이 한지에서 고생하고있는것이 마음에 걸리시여 이틀어간에만도 두차례나 수백리길을 오가시며 로고를 바쳐가시는 인민의 어버이의 그 뜨거운 진정에 어찌 하늘도 감복하지 않을수 있으랴.

군당청사와 천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의 식량문제와 농사문제를 두고 세심하게 가르쳐주시며 대책까지 세워주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 문득 군의 책임일군에게 집을 잃은 주민들을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중요기관건물들에도 분숙시키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군의 책임일군은 그만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어쩔수 없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큰물피해에 당황하여 여기저기 헤매이다나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미전에 주신 과업을 집행할 시간적여유를 찾아내지 못했던것이다.

시간상관계로 아직 들이지 못했다는 죄스러움이 섞인 그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저으기 안색을 흐리시였다.

집을 잃고 고생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고 그

들이 피해복구가 끝날 때까지 안착된 생활을 하게 하려는 자신의 심정에 일군들이 미처 따라서지 못하는것이 너무도 안타까우신것이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책임일군에게 집을 잃은 주민들을 군당위원회청사에 들이고 군당일군들은 천막에서 생활하여야 한다고,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군당집행위원들도 수재민들과 같이 생활하는것이 나쁘지 않다고 낮으나 단호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이 일군들의 심장속에 전류처럼 흘러들며 뜨겁게 울리였다.

인민들은 군당청사에서!

일군들은 천막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뇌리에는 군당청사와 천막이라는 말이 맴돌며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그러며 인민을 위하시는 원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국가문명시대가 시작된 때로부터 수천년의 세월이 흘러왔고 그 기간에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친다고 하는 정치가들도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 어느 지도자가 재난당한 평범한 백성들을 위해 나라의 중요청사를 통채로 내준 례가 있었는가.

인민들은 군당청사에서 생활하고 군당일군들은 천막에서 일한다!

이것은 오직 인민을 하늘로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펼치실수 있는 인민사랑의 새 전설이다.

□ 깊은 밤 만나주신 일군

어느해 7월이였다.

밖에 나서기만 하여도 숨이 막히는 혹심한 무더위가 지속되던 때에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계시였다.

그 나날에 찾으신 곳의 하나가 경성군에 위치한 한 휴양소이다.

쌓이신 피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곳에 도착하시여 휴양소의 관리운영실태와 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 휴양소를 현대적으로 새로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다음이였다.

수수한 침대에 허물없이 앉으신 그이께서는 경성군당의 책임일군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에게 현재 군당에서 진행하고있는 사업들과 앞으로 계획하고있는 사업들에 대하여서도 물어주시고 군을 특색있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며칠전에도 강조하였지만 당중앙은 군당위원회에 나라의 해당한 지역의 인민들과 자원을 맡겼으며 군내 자원을 옳게 리용하여 인민들을 잘살게 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릴 책임을 지웠다고, 전반적인 국가사업이 잘되려면 군당위원회들이 자기의 역할을 옳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일군들이 자기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놓여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모든 일에서 기수가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원수님의 로고가 사무쳐와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사적들로 이름높고 도자기와 온천으로 자랑높으며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명승지가 많기로 소문난 경성군의 천연자원들을 군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면 얼마든지 군을 남부럽지 않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성군은 벌도 있고 산과 바다도 끼고있으며 교통조건도 좋다고, 공업과 농업, 수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도 일정하

게 갖추어져있는것만큼 군당위원회가 자연경제적조건이 유리한 군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하지만 군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밝혀주시며 당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은 끝이 없었다.

참으로 뜻깊은 밤이였다.

군당일군의 마음속에서는 세찬 격정이 파도치였다.

정녕 자애로운 어버이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이렇게 이어가시는 헌신과 로고의 무수한 밤을 어찌 다 헤아리랴!

□ 두메산골에 꽃펴난 인민의 꿈

한겨울의 추위도 밀어내며 더운 김을 물씬물씬 피워올리는 실내온천장과 야외온천장, 시원하게 펼쳐진 스키주로와 승마공원이며 눈이 부시도록 황홀하게 펼쳐지는 독특한 야경…

여기가 바로 국내는 물론 세상에 소문이 짜한 산간오지에 자리잡은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이거니 정녕 이곳에 깃든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은 얼마나 뜨거운것이며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또 얼마나 크나큰것인가.

깊은 밤에 확정해주신 적지

몇해전 8월 어느날이였다.

그날은 례년에 없는 폭염이 계속되여 숨쉬기조차 힘들던 때였다.

하지만 조국땅의 풍부한 온천들을 다양하게 개발리용하기 위한 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며 온천들에 대한 자료를 거듭 연구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양덕군의 온천지구에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본보기 온천문화휴양지를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그 적지를 확정해주시려 머나먼 밤길을 달리시여 양덕군을 찾으시였다.

먼길을 달려오시였건만 그이의 존안에는 무한한 정력의 빛이 차고 넘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일군들을 부르시여 군안의 온천지구에 꾸려져있는 료양소들의 운영실태와 온천리용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은 바야흐로 이 산골에 인민을 위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새 력사가 펼쳐지리라는 예감이 들며 가슴벅차오름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는 일군들을 일별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곳곳에는 주변경치가 뛰여나고 사람들의 건강과 병치료에 효과가 대단히 좋은 온천자원들이 적지 않지만 휴양 및 료양시설답게 위생문화적으로 온전하게 꾸려진 종합적인 봉사기지가 없다고, 며칠동안 여러모로 따져본 결과 그중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된 양덕군의 온천지구를 현지고찰하고 멋있게 하나 지으려고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새겨듣는 동행한 일군들에게는 바로 한달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성군에 있는 온포휴양소(당시)를 찾으시여 휴양소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때가 뜨겁게 회억되였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양덕땅에 불멸의 령도자욱을 새기시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할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니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의 한량없는 사랑의 세계에 그들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양덕군 온정리일대의 온천골들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천의 용출량과 물온도를 비롯한 중요특성에 대하여 직접 료해하시였다. 그러신 다음 그곳을 온천문화휴양지의 적지로 확정하시였다.

온천문화휴양지의 적지확정!

일군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인민의 어버이께서 직접 밟아보시며 확정해주신 두메산골의 이 적지가 문명의 별천지로 화할 그날이 벌써 보이는가싶어 그들의 얼굴마다엔 끝없는 환희와 격정이 함뿍 어리였다.

(사람들이여, 깊은 밤 무더위속에 양덕땅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고를 바쳐가시며 온천문화휴양지의 적지를 확정해주신 이날이 있어 이 두메산골에 문명의 새시대가 밝아오고있음을 부디 잊지 마시라!)

이렇게 심장으로 토로하는 일군들의 격정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예견치 않았던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리는 속에서도 온천물이 쉬임없이 뿜어져나오는 용출구를 보시면서 그 무슨 보석이라도 찾으신듯 환하게 웃으실 때, 견디기 어려운 무더위속이였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종합려관을 건설할 위치도 몸소 잡아주시고 야외온천도 할수 있게 실내욕탕뿐 아니라 야외온탕도 꾸리며 개별온탕, 대중온탕, 치료온탕 등 각종 온천욕봉사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실 때 절정에 달하였다.

닭알삶는 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찾아주신 2018년 10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건설총계획도앞에서 건물들의 여러가지 배치방안을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것을 다 참고하여 건축미학적으로나 편리성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을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나서 온천용출구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하얀 김을 뭉게뭉게 피워올리며 땅속에서 콸콸 솟구쳐오르는 온천물은 보면 볼수록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다.

이 온천과 더불어 이제 머지않아 희한하게 꾸려질 온천문화휴양지에서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할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이윽토록 용출구를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마실 물인데 우리가 먼저 맛보자고 하시며 제일먼저 뜨거운 온천물이 담긴 고뿌를 받아드시였다. 물맛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는 80℃가 넘는 온천물에 몸소 손까지 잠그어보시고나서 온천물이 정말 뜨겁다고, 이 물온도면 닭알도 삶을수 있겠

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벌써 몇번째로 하시는 닭알이야기였다.

두달전 양덕땅을 처음으로 찾으신 그날에도 온천의 용출량과 온도를 알아보시다가 불쑥 80℃이면 닭알을 삶을수 있지 않는가고 물어보시고 어느한 온천용출구앞에 이르시여서는 닭알을 이 온천의 용출구에 넣고 30분정도 있으면 반숙된다고 하는데 이런 온천이 바로 진짜 고온천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런데 오늘은 자신께서 몸소 온천물의 온도를 가늠해보시며 또다시 닭알을 삶을수 있겠다고 기뻐하시는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이하여 거듭 닭알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있었다.

이윽고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오랜 시간에 걸쳐 온천문화휴양지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용출구에 가서 닭알을 삶아보자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초조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삼지연시건설장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찾으신데 이어 순간의 휴식도 없이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으로 먼길을 달려오신 그이께서 점심식사마저 번지시면 어쩌랴 하는 생각에서였다.

허나 그이께서는 자신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늘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인민들에게 온천관광지구를 잘 꾸려 안겨주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며 또다시 용출구앞으로 다가가시였다.

일군이 닭알들을 온천물속에 조심히 담그는것을 유심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일군에게 닭알이 몇분이면 익을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우리가 시험해본데 의하면 17분이면 됩니다.》

그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럼 20분만 삶아보자고 하시면서 자신의 손목시계에 눈길을 주시였다. 닭알삶는 시간을 측정해보시려는것이였다.

한초한초…

천금같이 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간이 산골군의 이름없는 온천용출구앞에서 흘러갔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는 시간보다 더 귀중한 시간은 없으신듯 용출구옆의 수수한 의자에 앉으시여 닭알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높뛰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기에 닭알삶는 터도 만들어주어야 할것같다고, 닭알삶는 터까지 만들어주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천물의 온도에 대하여 그토록 관심하시고 오늘은 점심시간도 미루시며 닭알삶는 시간을 측정하고계시는가를 깨닫게 되였다.

언제나 그 어디서나 마음속 첫자리에 인민을 놓으시고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좋은것을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양덕땅에 온천문화휴양지를 꾸릴 구상을 펼치시던 그때 벌써 온천욕뿐 아니라 온천물에 삶은 닭알도 맛보며 좋아할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이 소중히 간직되여있은것 아니였던가.

어느덧 시간이 되여 닭알이 다 익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온천물에 삶은 닭알을 한알씩 맛보도록 하신 다음 닭알이 잘 익었는가 알아도 보시고 닭알을 담을수 있는 틀도 만들어줄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고서야 건설장을 떠나시였다.

그로부터 1년만에 완공단계에 이른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외온천장의 닭알삶는 터에 조미료를 놓아줄수 있게 벽장도 설치해주자고 또다시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는 그 이름도 처음인 닭알삶는 터가 생겨나게 되였다.

닭알삶는 터, 이것은 진정 온 나라 천만자식을 한품에 안은 위대한 어머니의 다심한 손길에 대한 인민사랑의 대명사가 아니겠는가.

세상에 다시없는 락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019년 4월 어느날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시였을 때 건설장은 그야말로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하나의 커다란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건설장의 여기저기에 자기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고 군인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손에선 불꽃이 일어번지고있었다. 건설자재들을 나르는 대형화물차들과 불도젤, 기중기들이 내는 동음은 마치 교향악단의 각종 악기들에서 정교하게 조화되여 울려나오는 대교향곡처럼 들려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산간지역에서 새시대의 또 하나의 새로운 문명이 창조되고있는 건설장을 돌아보시며 시종 만족해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도 건설이 시작되여 단 몇달만에 이처럼 놀라운 전변이 펼쳐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들에게서는 연방 경탄의 목소리만이 울려나올뿐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새로운 문명을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새로운 문명을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이 우리 인민을 위한 사업인것만큼 우리는 만짐을 지고 달려야 하며 한 전투가 끝나면 다음전투에 진입하면서 투쟁의 발걸음이 멈춤없이, 쉬임없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은 중도반단함이 없이 계속 내밀어야 한다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였다.

세찬 흥분으로 가슴들먹이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론 투쟁과정에 일시적인 난관이나 어려움이 가로놓일수 있다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늘 강조하는것처럼

이렇게 만짐을 지고 달리는 고생을 세상에 다시없는 락으로, 복으로 감수하여야 한다고, 인민을 위한 고생을 우리가 하여야지 누가 대신 해줄수는 없다고 근엄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고생을 세상에 다시없는 락으로!

인민을 위한 고생을 세상에 다시없는 복으로!

참으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인민의 어버이만이 터칠수 있는 심장의 고백이였다. 한없이 고결한 인생관, 숭고한 인민관을 지닌 위인만이 터칠수 있는 마음속진정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일해나가야 하는가를 다시금 뜨겁게 새기였다.

새로 생겨난 어린이스키주로

2019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실 때 건설장을 돌아보시며 스키장건설에 대해 깊이 관심하시였다.

스키주로를 건설할 산골짜기를 가리키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저 산골짜기에 스키주로를 건설하는가, 산의 해발고는 얼마인가, 스키주로의 폭을 얼마로 잡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스키주로를 더 잘 완성하도록 일군들의 시야를 넓혀주시였다.

스키장건설과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건만 그이께서는 여기에서 만족을 느끼지 않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설계일군에게 스키장에 어린이들을 위한 주로가 없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이르시였다.

어린이들을 위한 주로를 건설합시다. 우리 나라에서야 어린이들이 왕이 아니요. 왕의 주로가 없어서야 안되지.

순간 일군들이 받아안은 충격은 컸다. 스키장건설을 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스키주로건설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스키장에 주로를 세개 건설하게 되여있는데 어린이용으로 주로를 하나 더 건설하여야 한다고, 스키장에 어린이용주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그 주로에서 어린이들이 썰매도 탈수 있도록 초수평주로로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린이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에 접한 일군들의 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어린이들을 위한 스키주로, 정녕 그것은 단순한 스키주로가 아니였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에 떠받들려 태여난 행복의 주로였다.

건설장에서 그려보신 행복의 별천지

한창 건설중에 있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또다시 찾으신 때는 2019년 8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천지개벽된 건설장을 둘러보시면서 일군들에게 전번에 자신께서 여기에 왔을 때 보았던 옛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게 변모되였다고 하시며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정말 멋있게 전변되였다고 하시며 이런 희한한 전경을 보고서야 피가 있는 사람치고 누가 격동되지 않겠는가고, 낡은 온실 한두개밖에 없던 골짜기에 단 몇달사이에 세상을 놀래울 기적이 창조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그이께 예로부터 양덕, 맹산이라고 하면 산골중의 산골이라고 하였는데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현실로 꽃펴난 여기에 와보면 누구나 감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것이라고 말씀올리였다.

일군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지구의 건축물들은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의 요구가 반영된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행복의 별천지에 펼쳐질 래일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즐겁게 스키도 타고 온탕치료도 받으면 남녀로소 누구나 다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훌륭한 선물을 안겨줄수 있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고, 오래전부터 품어온 꿈이 실현되게 되였다고, 정말 만족하다고 자신의 심정을 터놓으시였다.

이 땅우에 인민의 행복을 위한 재부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크나큰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그이의 품속에 안겨사는 조국의 인민처럼 복받은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마음속진정을 터치고 또 터쳤다.

준공을 앞둔 그날까지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019년 11월 어느날 준공을 앞둔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현지에 도착하시여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며 일떠선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둘러보시다가 정말 볼수록 마음에 든다고 만족해하시였다.

휴양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어느한 호동에 이르시여 일군들에게 봉사건물에는 안내판이 있어야 사람들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을 쉽게 찾아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현관홀에 안내판을 만들어놓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대중식사실을 돌아보시며 좌석수를 호동의 수용능력에 맞게 늘일데 대하여 일깨워주시고 어느한 호실에 들어서시여서는 손님들의 옷과 손짐을 보관하는 장이 작을것같다고, 침실에 트렁크 같은 손짐을 올려놓을수 있는 탁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침실을 둘러보시면서도 침실에 침대를 놓을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침대를 하나 더 놓아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또한 장식장을 가리키시면서 침실에는 장식장에 넣을수 있는 작은 랭동기를 놓아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언제나 변함없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한길만을 걷는 위대한

인민, 참 좋은 인민들이 향유하게 될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 하나라도 더해주고싶으신 어버이의 심정이 넘쳐흐르는 뜻깊은 말씀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종합적이며 다기능화된 문화휴양지를 안겨주게 되였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우시려고 준공을 앞둔 그날까지도 깊이 마음쓰시며 건설장을 찾고찾으시였다.

그날의 사연 전하는 삭도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찾는 사람들 누구나가 다 이곳에서 즐거운 휴양의 한때를 보내면서도 무심히 대하지 않는 설비가 있다.

그것이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숭엄한 감정에 젖어들게 하는 삭도이다.

스키를 즐기는 휴양생들이 오르내리는 바로 이 삭도에도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들에게 더 좋은 휴양조건을 마련해주시려 크나큰 로고를 기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19년 12월 어느날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찾으시였을 때이다.

스키종합봉사건물에 들리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기재봉사매대앞에서 스키기재들을 보아주시며 온천치료와 함께 스키봉사도 받을수 있어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스키종합봉사건물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스키장에 다시 가보자고 하시며 삭도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일군들은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몇번 시운전이나 해본 삭도에 경애하는 그이를 모실수 없다고 생각한 한 일군이 승용차를 타고 올라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없다고, 동무들이 시운전을 열

번 하였다고 하여도 내가 한번 타고 올라가는것만 못하다고, 인민들은 내가 삭도를 타고 올라갔다는것을 알게 되면 더 마음을 놓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몸소 삭도에 오르시였다.

삭도를 타시고 스키장정점으로 향하시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어쩌면 그리도 한평생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같으실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던 인민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안겨주시려고 안정성이 채 확인되지 않은 삭도를 타고 정점으로 오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모습에 수수천년 잠자던 양덕땅의 원시림도 흐느껴우는듯 끝없이 설레였다.

이윽하여 스키장정점에 이른 삭도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파로운 주로를 나는듯이 지쳐내리는 청년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면서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인민들에게 훌륭한 스키장을 안겨주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환하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눈이 많이 내리는 양덕지구의 기후상태를 헤아려보시고 스키장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그 위치까지 확정해주시였을뿐 아니라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향을 제시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20여일전 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우리 당이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설한 온천치료봉사기지인것만큼 사소한 부족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간곡히 당부하신 경애하는 그이.

그러시고도 주신 사랑이 부족한듯, 바치신 로고가 적은듯 또다시 찾아오시여 삭도까지 타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다시 삭도를 타고 스키장도착구역으로 내려가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스키장의 수용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도 알아보시고 스키 2주로와 3주로가 합쳐지는 곳에 안전그물을 설치하여 경계를 갈라줄데 대하여서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스키장을 날으는 삭도.

절세의 위인께서 그날에 타시였던 삭도는 인민을 위함이라면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같은 사랑과 헌신을 전해주며 오늘도 사람들을 반겨맞고있다.

□ 두번이나 들어주신 소원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이불작업반 로동자들에게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뜻깊은 기념사진이 있다. 자기들이 일하는 생산현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이다.

혈연의 정이 흘러넘치는 이 기념사진에는 참으로 감동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다.

주체106(2017)년 1월초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였다.

언제나 뵙고싶은 그이를 불과 반년만에 또다시 일터에 모신 공장일군들의 가슴은 무한한 행복감으로 설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만족을 금치 못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창조물이 마련된것이 기쁘시여 멋있다고 높이 평가해주시고 차곡차곡 쌓여있는 각종 이불들을 보시고서는 처녀총각들이 시집장가갈 때 이런 멋있는 이불들을 안겨주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새 가정의 행복넘친 모습을 환한 미소속에 그려보기도 하시였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있을 때 문득 동행한 한 일군이 경애하는 그이께서 공장을 찾으시였던 지난해 6월에 이 작업반의 일부 동무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곳에 가있다나니 기념사진을 찍지 못하였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 일군이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된것은 며칠전 공장에 나왔던 기회에 한 기능공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자리에 그를 포함한 여러명의 작업반원들이 참가하

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였기때문이였다. 그들은 한생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으로 한달나마 눈물속에 살다싶이 하였고 그후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꾸린 일터에 문득 다시 찾아오실것만 같아, 영광의 그 시각을 또 놓칠것만 같아 명절날과 휴식일에도 생산현장을 뜨지 않고있었다.

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말씀을 올리면서도 자기가 너무 외람된 행동을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을 조이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의 이야기에서 종업원들의 간절한 소원을 헤아리시고 즉석에서 이불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가운데 지난해에 나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지 못한 동무들이 있으면 사진을 찍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생산현장을 둘러보시며 친히 사진찍을 위치까지 정해주시는것이였다.

꿈결에도 바라던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작업반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곁으로 넘어질듯, 엎어질듯 달려왔다.

어린애들처럼 막무가내로 그이께 안겨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누구보다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한 사람들은 공장일군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처음 공장에 모시였던 2016년 6월에 있은 일이 어제런듯 되살아났던것이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현지지도를 마치시면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고 열광의 환호성이 터져오르는 속에 그이께서 얼마쯤 걸음을 옮기시였을 때였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았는지 정신없이 달려오는 공장탁아소, 유치원 보육원, 교양원들의 모습이 구내길에 나타났다.

동행한 일군들이 당황해하는데 공장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앞에 나섰다. 기념사진을 한번 더 찍어주셨으면 하는 청을 올리던 일군은 그만 말끝을 흐리고말았다.

그날따라 무더위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공장의 곳곳을 돌아보시고 종업원들과 기념사진까지 찍으신 경애하는 그이의 옷이 땀으로 화락하게 젖어있었던것이다.

일군이 송구스러워 어쩔줄 몰라하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달음질쳐오는 녀성종업원들을 보시고 기념사진을 찍지 못한 탁아소, 유치원 보육원, 교양원들이 달려오고있는데 그들과도 사진을 찍자고 정깊게 말씀하시였다.

보육원, 교양원들을 손저어 부르시며 빨리들 오라고, 어서 뒤에도 서고 앞에도 앉아 사진을 찍자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친어버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솟구치는 격정에 눈굽을 적시였던 공장일군들이였다.

그런데 이날 또다시 이불작업반 로동자들의 소원도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니 그 고마움의 인사를 무슨 말로 다 드릴수 있단 말인가.

감사의 정에 휩싸인 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울지만 말고 사진을 찍을수 있게 내앞에 앉기도 하고 옆에 서기도 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태여난 기념사진, 행복에 울고웃는 이불작업반 로동자들의 뜻깊은 사진이였다.

두번이나 들어주신 소원.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종업원들이 더없는 영광과 자랑으로 간직한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따뜻이 품어안아 보살펴주시며 가슴속 깊은 곳에 안고있는 소원도 모두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세계를 감동깊이 전하고있다.

□ 제일 기쁜 일

사시장철 푸른 물 출렁이며 인민들에게 기쁨만을 안겨주는 락원의 강, 행복의 강인 대동강물결우에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웃음과 랑만을 안겨주는 그 이름도 아름다운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떠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서 바라보면 마치 동화세계의 꽃동산처럼 보이는 이 《무지개》호에도 절세위인의 숭고한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찾아주신 주체104(2015)년 9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유보도에 서시여 불야경을 이룬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바라보시며 칠색령롱한 무지개같다고, 대동강이 더욱 밝아졌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조국의 수도 평양은 낮에 보아도, 밤에 보아도 정말 황홀하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일군들은 북받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여러 차례나 종합봉사선의 설계도 지도해주시고 건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몸소 풀어주시며 배의 이름을 《무지개》호로 명명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이어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시면서 건조실태와 봉사활동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합봉사선의 정상운영을 위한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며 《무지개》호를 찾는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봉사활동을 깐지고 섬세하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커다란 만족속에 봉사선을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대동강에 《무지개》호를 띄워놓음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더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고, 배를 타고 대동강을 유람하면서 웃고 떠들 인민들을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가셔진다고, 이렇게 인민들에게 안겨줄 재부를 한가지, 한가지 마련해놓을 때가 자신께 있어서 제일 기쁜 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제일 기쁜 일!

일군들은 그이의 말씀을 되새겨안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울이시는 사색과 심혈의 세계를 과연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는 생각으로 눈시울을 적시였다.

비내리는 궂은 길, 험한 령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인민들이 즐겁고 특색있는 유람의 한때를 보내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인민들에게 안겨줄 재부를 마련해놓을 때가 자신께 있어서 제일 기쁜 일이라고 심중의 고백을 터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끊임없이 걷고걸으시는 헌신의 길이 있어 우리 인민의 행복넘친 길이 더욱 활짝 열리는것 아니던가.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경애하는 그이이시야말로 한몸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인민의 행복을 안아오시는 절세의 위인,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이시라는 격정의 웨침이 세차게 울리고있었다.

□ 회의장을 울린 어버이의 진정

주체109(2020)년 8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되였다.

그때로 말하면 재해성폭우와 큰물로 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이 소개지에서 생활하고있던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치국회의에서 피해상황을 종합한 자료를 통보하시면서 집과 가산을 잃고 림시거처지에 의탁하여 생활하고있는 수재민들의 형편과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을것이라고 하시며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수재민들에 대한 걱정으로 안색이 흐려진 그이의 모습을 뵈오며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수 있었다. 그리고 인민들이 불편해하고 인민들의 리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한다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에 대하여 다시금 똑똑히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내를 근엄하신 표정으로 굽어보시며 이렇게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 …

고생을 하는 인민들곁으로 더 가까이!

회의참가자들모두의 심장이 세차게 고동쳤다. 뜻밖의 자연재해가 들이닥치던 그때부터 인민들 생각으로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계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그들의 눈굽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큰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부문별과업과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피해복구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언제나 함께 하고 그것을 가셔주고 지켜주는 우리 당의 혁명적본태와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현실로 다시금 실증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당이 자기의 성스러운 의무를 다해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여야 한다고 거듭 호소하시였다.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가셔주는 당의 혁명적본태!

정녕 그날의 회의장을 울린 경애하는 원수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은 인민이 겪는 불행을 가셔주는것을 가장 큰 본분으로 여기시는 인민의 어버이만이 터놓을수 있는 열화같은 진정의 분출이였다.

□ 약속

주체101(2012)년 5월 어느날이였다.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개선빵집에도 들리시였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식당을 돌아보시며 그이께서는 세심하게 물으시였다.

매대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인민들이 어느 빵을 제일 좋아하는가, 음료는 몇가지로 봉사하는가. …

그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맨 앞쪽에 있는 식탁을 짚어보시며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영문을 몰라하는 일군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식당의 일군에게 인민들이 식탁을 리용하면서 높다는 의견을 제기하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이곳 일군이 인민들이 서서 봉사를 받기때문에 불편해하지 않는다고 말씀올리여서야 그이께서는 마음을 놓으시였다.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사소한 불편을 느낄세라 세심히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의 다심하신 사랑에 머리가 숙어졌다.

잠시후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개선빵집에 다음번에 꼭 와보겠다고 약속하시였는데 와보지 못하시였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불뭉치같은것이 솟구쳤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몸소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시여 유희시설들과 빵집을 비롯한 유희장의 급양봉사망들도 잘 운영되고있는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신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신 그날의 약속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식당을 찾으신것이였다.

식당을 나서시여서도 선뜻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고 개선빵집을 오래도록 바라보고계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안광에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력력히 어려있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차마 떨어지기 아쉬워 눈물이 글썽해있는 식당종업원들의 모습에서 영광의 시각을 손꼽아 기다려온 이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약속!

세상에 이 말이 생겨난 때로부터 사람들사이에는 얼마나 수많은 약속이 오고갔으며 그것이 지켜지며 흐른 세월은 또 얼마나 장구한 것인가. 하지만 그 언제 약속과 관련한 이렇듯 눈물겨운 이야기가 기록된적 있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과 하신 약속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시고 인민사랑의 력사를 련면히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거룩한 위민헌신의 장정우에 새겨져있는 이 이야기는 수령과 인민간의 혼연일체를 이룬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과 더불어 먼먼 래일에도 길이 전해질것이다.

□ 친히 들어보신 기름통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2(2013)년 6월 어느날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전시해놓은 전시장에도 들리시였다.

전시된 제품들을 깊은 관심속에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추장상표가 붙은 제품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추장단지를 하나 드시고 친히 맛을 보시고나서 일군들에게 맛이 좋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다음전시대에 가시여서도 진렬되여있는 맛내기의 맛을 몸소 보아주시고 잘 만

들었다고 공장일군들을 치하해주시였다.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제품의 맛까지 몸소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콩기름이 전시된 곳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실내를 꽉 채운 전시된 제품들을 만족한 시선으로 바라보시였다. 동행하던 일군들도 전시대는 물론 바닥에까지 쌓여있는 제품들을 보며 흐뭇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공장의 일군들은 조금이나마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생각으로 하여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이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득 2개의 기름통을 량손에 들어보시는것이였다. 그러시고는 인민들에게 맛좋은 기름을 풍족하게 안겨주고싶으신 자신의 심정을 절절히 터놓으시였다.

순간 장내가 숙연한 감정에 휩싸였다.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시였으면 이렇듯 기름통까지 들어보시랴.

그 언제나 그 어디에 가시여서도 언제나 인민, 인민만을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마음이 그이 량손에 들어보신 기름통들에 그대로 비껴있었다.

이날 공장을 떠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공장일군들은 생산에서 비약을 일으켜 인민들에게 맛좋은 기초식품을 더 많이 안겨줄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 값높은 평가-불굴의 투사

조국과 인민을 위한 초강도강행군으로 날과 달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어느해 12월 찬바람을 맞으시며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시였다.

원산군민발전소는 하자고 결심한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가를, 대자연을 마음대로 길들이는 인민의 창조적힘과 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보여주고있었다.

언제에 새겨진 《자력갱생》이라는 글발을 가리키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힘이 난다고, 이 발전소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준 발전소,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슴배여있는 발전소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강원도의 일군들, 발전소의 건설일군들은 무한한 격정속에 설레였다. 간고분투하여 기어이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일떠세우자고 떨쳐나섰던 도내 인민들의 불굴의 모습이 떠올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전소건설과 생사를 함께 하며 애국의 피와 땀을 바쳤던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난관을 뚫고헤치며 발전소완공이라는 오늘의 승리에로 줄달음쳐왔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모두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도내 인민들이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중중첩첩의 험한 고비들을 다 알고계시는듯, 그들이 발휘한 고귀한 투쟁정신을 천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는듯 일군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강원땅에 능력이 대단히 큰 발전소를 또 하나 건설한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불굴의 투사!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길에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안아온 선렬들이 받아안았던 고귀한 부름인 불굴의 투사!

참으로 강원도인민들을 하늘높이 내세워주시는 값높은 평가였다.

절세위인의 크나큰 믿음이 차넘치는 그 부름을 받아안으며 강원도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웨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자력자강의 정신이 우리를 불굴의 투사들로 키웠다고.

□ 별천지우에 새겨진 비행운

주체104(2015)년 6월 29일 사동구역 장천남새농장의 상공에 한대의 비행기가 날고있었다.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으로 전변된 장천지구의 별천지우를 한바퀴 빙 돌고나서 선뜻 떠나기 아쉬운듯 다시금 크게 선회하는 비행기.

장천의 하늘가에 새겨진 그날의 비행운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그날 장천남새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커다란 경사의 시각을 맞이하였다.

이곳 농장마을이 희한한 농장도시로 변모되여 새집들이를 하게 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친히 농장에 나오신것이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도착하시자 농장관리위원장이 어푸러질듯 달려와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자기들의 농장을 이렇게 훌륭히 전변시켜주시여 정말 고맙다고 농장마을사람들의 진정까지 다 합쳐 절절히 아뢰이는 그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의 전경을 정깊게 바라보

시였다.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축으로 하여 마치 령롱한 무지개가 그대로 땅우에 내려앉은것만 같이 여러가지 아름다운 색갈로 단장된 아담한 살림집들,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갖가지 모양과 특색을 가진 공공건물들과 번듯한 남새온실들…

한폭의 대형전경화와도 같은 농장의 모습에서 한동안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천지개벽되였다고, 우리 농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이 장천땅에 현실로 꽃펴났다고 기쁨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언제나 그러하시듯 인민을 위해 크고 보람있는 일을 해놓으신 기쁨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꽃피우신 행복감에 담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어제날 《빈봉투농장》으로 불리우던 이곳을 살기 좋고 흥하는 농장으로 꾸려주시기 위해 그리도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시려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크나큰 로고를 기울이시였던가.

자신께서 장천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심중을 안으시고 하나의 점과 선까지도 일일이 헤아려 지도해주신 수많은 형성안들, 농장의 발전을 위해 뜨락또르와 함께 가야금까지 보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마음으로 취해주신 은정깊은 조치들…

심혈을 바쳐가시며 구상하고 설계하신 농장의 황홀한 새 모습이 현실로 펼쳐지였으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안에는 기쁨의 미소가 가득 어리였다.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하나의 농장도시이라고,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농장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옛날 지주집이 있던 자리에 솟아난 문화회관에 들어서시여서는 농장원들이 이곳을 《인민극장》이라고 부른다는 관리위원장의 이야기를 흐뭇하게 들으시며 이제는 도시사람들도 여기에 와보면 부러워할것이라고 하시였고 새로 건설된 탁아소와 유치원이 너무도 훌륭하여 농장

의 나이든 녀성들이 이제라도 아이를 더 낳고싶다고 이야기한다는것을 아시고서는 그럴것이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커다란 만족속에 장천리병원을 지나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척 보기만 해도 문명한 농촌의 새 정취가 한껏 느껴지는 장천원에도 들리시였다.

이렇듯 오랜 시간에 걸쳐 천지개벽된 농장의 곳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 문득 정말 멋있다고, 자신께서 비행기를 타고 보겠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순간 동행한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천금같은 시간을 내시여 농장을 찾아주신것만도 감격할 일인데 하늘에 오르시여서까지 보아주시다니!…)

꿈에도 생각 못한 은혜로운 사랑에 가슴설레이면서도 일군들은 나라의 천만중하를 걸머지시고 분초를 쪼개여 사업하시는 그이께서 이제 또 어떻게 귀중한 시간을 내시랴 하는 생각이 갈마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장원들이 곧 입사하게 될 소층살림집에도 들리시여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고 남새온실에 들리시여 농사작황이며 선진적인 영농기술을 보급받는 문제 등을 일일이 료해하실 때에도 일군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이윽하여 전망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 농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다가 땅에서 보아도 멋있는데 하늘에서 보면 더 멋있을것이라고 또다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변모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찾아뵈옵고 장천땅의 전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영상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이의 절절한 말씀에 농장일군들은 물론 동행한 일군들모두가 목이 꽉 메여올랐다.

그토록 오랜 시간을 바치시며 장천리의 전변상을 보아주시고도 어이하여 그이께서 비행기까지 타시고 보려 하시는지 그 뜨거운 심중이 가슴에 어려와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장천리의 인민들이 새 세기의 문명을 한껏 누리며 살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땅에서도 보시고 하늘에서도 보신 장천리의 황홀경을 고스란히 위대한 수령님들께 보고드리고싶은 심정이 그리도 불같으시여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천사만사를 뒤로 미루시고 자신의 겹쌓인 로고마저 다 잊으신것 아니랴.

하여 이날 장천의 별천지우에는 뜻깊은 비행운이 새겨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비행기가 맑고 푸른 하늘가에 하얀 비행운을 거듭 그릴 때 장천리인민들이 목청껏 터쳐올리는 만세소리가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장천의 별천지우에 새기신 비행운, 정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까지 합쳐 이곳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따뜻한 축복이였고 사회주의농촌의 휘황한 래일을 그려주는 뜻깊은 화폭이였다.

어느덧 기수를 돌려 멀어져가는 비행기를 뜨거운 눈물속에 바래우며 농장관리위원장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뢰였다.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농장마을을 행복의 무릉도원으로 변모시켜주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오늘 이렇게 땅우에도 하늘에도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였습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것이야말로 우리모두의 최상의 행운이고 영광입니다!)

□ 수산물식당과 더불어 펼쳐진 사랑의 세계

이 땅우에 인민의 행복을 위한 재부들이 하나둘 늘어나는데서 제일 큰 기쁨을 느끼시는분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쳐 인민들에게 안겨줄 창조물들을 일떠세워주시고 찾으시여서는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하시며 위민헌신의 의지를 더욱 가다듬으시는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

어서 오라 부르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특색있게 일떠선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이곳에 새겨진 이야기도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명당자리에 비낀 소원

주체107(2018)년 6월 어느날 밤이였다.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커다란 격정에 휩싸이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이곳 식당을 찾아주신것이였다.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는 일군들과 따뜻이 인사를 나누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식당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식당 1층의 실내못들을 만족속에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큰삽조개 못턱에 스스럼없이 앉으시며 이렇게 맛도 좋고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은 여러가지 수산물들을 봉사해주면 우리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거라고,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다고 심중을 터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빛같은 미소를 우러를수록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식당건설을 위해 바치신 그이의 헌신과 로고가 뜨겁게 되새겨졌다.

식당의 위치는 물론 설계형성안들도 하나하나 지도해주시며 건설력량편성으로부터 자재, 설비보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러시고도 모든 로고를 깊이 묻어두시고 인민들이 누리게 될 기쁨만을 생각하시니 그 숭고한 화폭앞에 누군들 감복하지 않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층 로대로 나오시였을 때였다.

릉라다리와 옥류교, 옥류관과 창전거리의 밤경치를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로대에서 바라보니 대동강의 풍치가 한눈에 안겨온다고,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의 위치가 정말 명당자리라고, 오늘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리였다고 기뻐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어버이의 소원.

새겨볼수록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우리 조국에는 많고많은 명당자리들이 있다. 그 하나하나의 자리들이 모두 우리 인민의 행복의 터전이 되고 인민의 보금자리로 솟구쳐오르지 않았던가.

이 땅의 명당자리는 모두 인민의것이며 그 훌륭한 터전들에 인민의 재부가 꽉 들어차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사랑의 손길에 받들려 조국의 모습이 끝없이 변모되고 시련과 난관은 겹쌓여도 기쁨의 웃음소리는 높이 울리고있으니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으랴.

일군들은 명당자리에 일떠선 식당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식당의 모습은 단순히 건축물로만 안겨들지 않았다.

정녕 그것은 위대한 어버이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밝아올 조국의 찬란한 래일이, 자애로운 어버이의 소원이 비낀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정체로 안겨들었다.

바뀌워진 바닥타일

물우에 떠있는 배를 형상하여 특색있게 건설된 식당의 1층에는 고급어족들과 조개류들이 욱실거리는 커다란 실내못들과 낚시터 등이 꾸려져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식당 1층의 전경이 볼만하다고, 물고기들이 욱실거리는 실내못들이 꽉 들어찼는데 마음이 흐뭇하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도 식당안의 이채로운 전경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실내못들의 주변바닥을 세심히 살펴보시였다.

실내못들의 주변바닥에 깔아놓은 타일을 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런데는 봉사과정에 물이 떨어져 미끄러울수 있으므로 실내용보도블로크를 물매지게 깔아주어 물이 인차 빠질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관심을 돌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건설에 동원되였던 일군들도, 식당일군들도 그이의 가르치심에 머리가 숙어졌다. 자책이 너무도 컸다.

(우리는 왜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였던가. 건설 전 기간 그 바닥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가.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실내못들의 주변바닥에 깔았던 타일은 실내용보도블로크로 바뀌워지게 되였다.

산촌의 양어장에 가시여서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느한 양어장을 찾으신 때는 2019년 4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크고작은 양어못들을 살펴보시다가 한 양어못에 이르시여 물고기종류와 그 생산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일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양어장의 전반적인 실태를 환히 파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론 양어에 자금도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드는것만은 사실이라고, 그렇다고 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바다물고기만 먹일수는 없다고, 우리 인민들이 칠색송어나 민물련어와 같은 고급어족들도 맛보면서 유족한 생활을 누리게 하자는것이 당의 구상이고 의도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양어못들을 돌아보시며 물고기비린내가 푹 배인 못의 턱에 주저없이 앉으시여 양어발전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일군들은 한없이 겸허하신 그이의 말씀을 새겨안으며 양어에서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더 잘 알게 되였다.

이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양어장의 일군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장수어와 같은 희귀한 물고기들도 생산하여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 보내주어 우리 인민들이 맛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순간 동행한 일군들의 뇌리에는 한해전 깊은 밤에 대동강반에 솟아오른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찾으시여 새날이 밝아오는무렵까지 인민들의 식생활을 두고 로고를 바쳐가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열정적인 모습이 떠오르며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더우기 머나먼 산촌의 양어장에 오시여서까지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잊지 않으시고 그곳에 희귀한 물고기를 보내주어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불같은 사랑과 정이 뜨겁게 안겨와 눈굽이 쩌릿이 달아

오름을 어쩌지 못하였다.

그러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양어장을 꾸리는데 품이 들지만 일단 꾸려놓고 운영을 잘하면 그 덕을 반드시 보게 된다고 하시면서 물원천이 있는 곳에 양어장을 건설하고 주변환경을 잘 꾸려놓은 다음 양어를 집중적으로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산촌의 양어장에서 꽃펴난 사랑의 이야기.

갖가지 수산물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듣고 수저를 들기를 저어하였다.

□ 이른새벽에 걸어오신 전화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날들에는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끝없이 바쳐가시는 크나큰 헌신과 로고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주체110(2021)년 9월 15일도 그러한 날중의 하루이다.

이날 이른새벽 평양시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어오신 전화를 받게 되였다.

다정하신 음성으로 그의 건강에 대해 물어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방금 평양시에서 시험생산한 젖가루를 풀어 맛보았는데 우유의 고유한 맛과 색이 잘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질적측면에서 미흡한 점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해주시였다.

순간 책임일군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 새벽에 시제품젖가루를 몸소 맛보시다니?!)

밀물처럼 차오르는 격정에 책임일군은 눈앞이 흐려졌다.

평양시에서 젖가루생산을 위한 설비제작이 본격화된것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가 있은 후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여

주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에서는 한달동안에 여러 차례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새로운 젖가루생산설비를 제작하였고 첫 시제품을 생산하여 보고드리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른새벽에 그 시제품젖가루를 친히 맛보시고 전화를 걸어오실줄 어찌 알았으랴.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느라 늘 밤을 지새우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로고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생각하니 일군은 마음속에 납덩이가 들어앉는것같았다.

그가 너무도 죄송스러워 자책하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미 생산한 젖가루가 남아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식료공업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 일군들이 왜 그런 부족점이 나타나는가 하는것을 연구해보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평양시당위원회 집행위원들도 그 젖가루를 풀어 마셔보게 하라고 이르시는것이였다.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젖가루를 풀어본 상태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젖가루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우유의 맛과 색갈, 풀림도를 다시 검토해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찾아 보고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후대들을 위하시는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마디마디에 어려있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책임일군의 가슴은 후덥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시고도 놓친 점이 있을세라 마음쓰시며 원인을 찾고 설비를 완성한 다음 생산에 들어갈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꼭 훌륭한 젖가루를 생산해내겠다고 대답올리는 책임일군에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젖가루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먹이기 위한것이므로 자그마한 부족점도 없이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자그마한 부족점도 없이!

아이들을 위한것은 그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일 좋은것이여야 한다는 위대한 어버이사랑이 응축된 뜨거운 당부가 전류를 타고 책임일군의 심장속에 새겨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화를 놓으신 후 시계를 바라본 책임일군은 목이 꽉 메였다.

시계바늘은 새벽 4시 40분을 가리키고있었다.

그는 가슴가득 차오르는 격정을 안고 창가에 다가갔다.

이 나라 천만자식을 품에 안아 키워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불면불휴의 로고속에 또 하루 조국의 새날이 밝아오고있었다.

잊지 못할 그 새벽에 이어 평양시당책임일군에게 젖가루생산과 관련하여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가르치심은 계속되였으며 원수님의 거듭되는 지도속에 평양시에서는 짧은 기간에 어린이들에게 먹일 표준화된 젖가루를 생산하는데 성공하게 되였다.

이른새벽에 걸어오신 사연깊은 전화!

그날의 전화종소리는 아이들을 위한 젖제품 하나도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심정으로 정히 대해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세계를 뜨겁게 전해주고있다.

□ 연장된 체류일정

주체106(2017)년 9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이 평양에서 뜻깊은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수백명의 교원들은 여러날에 걸쳐 축하모임과 국가표창수여식, 선물전달식과 성대한 연회 등 여러 모임과 행사장들에서 최상의 환대와 은정을 받아안았다.

그러던 그들에게 평양을 떠날 시각이 왔다. 평양체류일정이 끝나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게 되였던것이였다.

교원들의 얼굴마다에 서운한 기색이 완연하였다. 그처럼 오고싶었던 평양에서의 체류가 눈깜짝할 사이에 끝난것만 같아서였다.

그러던 그들에게 뜻밖의 감격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다는것이였다.

그들이 모여선 기념촬영장은 뜨거운 격정과 환희의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오매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그이께서 촬영장에 나오시는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촬영대에 서있는 교원들을 바라보시며 동행한 일군들에게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은 모두가 애국자들이라고, 이들의 인생관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소개선전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여러 교원이 그이께 지성어린 꽃다발을 삼가 드리며 자기들의 불타는 결의를 아뢰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꽃다발을 받으시며 고맙다고 거듭 뇌이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촬영대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러시고는 촬영대에 선 미더운 교육자들을 다시금 뜨거운 시선으로 바라보시였다.

교원들의 눈가에서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들은 참다운 애국자들이라고, 이들은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 당이 바라는 일에 한몸 아낌없이 내대는 투철한 신념과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으로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원혁명가로서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는 이들의 순결한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애오라지 조국의 번영과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묻었을뿐인데 그것을 더없이 순결한 애국심으로 높이 평가해주시고 그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시니 이 세상에 이들처럼 크나큰 행운을 타고난 사람들이 그 어디에 또 있으랴.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사회적으로 이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이들의 고결한 인생관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신문,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받들고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하여 조국의 미래를 가꾸고 키우는 애국사업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교원들의 아름다운 소행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촬영대앞에 이르시였을 때 한 일군이 맨 앞줄

에 서있는 5명의 교육자들을 차례로 가리켜 소개해드리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며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하여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학생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인재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에 헌신하고있는 교원들은 다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당과 조국앞에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교원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또다시 터치며 경애하는 원수님곁으로 막 달려가 안기였다.

저저마다 그이를 에워싸고 존귀하신 영상을 좀더 가까이에서 뵙겠다고, 한번만이라도 그이의 손을 잡아보겠다고 어린애마냥 발을 동동 구르는 교원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주시며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 떠나가신 후 교원들은 평양체류일정을 마치고 떠나게 되여있던 자기들이 어떻게 되여 영광의 단상에 오르게 되였는지 알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들을 온 세상이 보란듯이 내세워주시기 위해 체류일정을 연장하도록 하시고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시였던것이다.

정녕 한생토록 잊지 못할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교원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다.

□ 기념촬영장에서 하신 당부

평양에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가 열리였던 주체103(2014)년 2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기 위해 촬영장으로 나오시였다.

언제나 뵙고싶던 경애하는 그이를 뵈옵게 된 참가자들은 만세의 함성을 우렁차게 터치였다.

그들에게 답례하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여러 촬영대로 자리를 옮겨가시면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 어느한 촬영대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함경남도의 한 책임일군을 띄여보시고 그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시였다.

도의 농업생산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실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일군은 그만 그이의 말씀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천만뜻밖에도 그이께서 입원치료중인 도안의 어느한 련합기업소 지배인의 병상태를 알려주시는것이였다.

일군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머뭇거리였다. 열광의 환호가 터져오르는 그속에서도 도의 일군은 주위를 전혀 감각할수 없었다. 열화와 같이 뜨거운 심장에서 분출되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간애에 온몸이 불타는것같았다.

그러는 일군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원에 가보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기념촬영장에서 하시는 그이의 당부.

심장을 두드리는 당부였다. 전사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인정이 어린 당부였다.

일군은 대회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계시는 그 시각에도 침상에 있는 한 전사를 두고 그토록 심려하시는 원수님의 사랑과 인정의 세계에 따라서자면 너무도 멀었다는 자책으로 숙연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기념촬영이 끝난 후 즉시 병원으로 달려간 일군은 그곳에서 또다시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미전에 전화로 병원일군을 찾으시여 지배인의 병상태를 료해하시고 치료를 잘해줄데 대하여 당부하시였다는것이였다.

늦게나마 병원을 찾게 된 사연을 말하는 일군의 목소리는 자주 끊기였고 그것을 전해듣는 지배인도 오열을 터치였다.

정녕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는 한사람한사람을 천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며 가장 열렬하고 웅심깊은 사랑

으로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위인적풍모를 절감하게 하는 력사의 순간이였다.

그들은 태양과도 같은 열과 정으로 온 나라 대가정을 품어안으시는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리며 서로 부둥켜안았다.

□ 새로 생겨난 무궤도전차운행로선

주체111(2022)년의 뜻깊은 태양절 아침부터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앞도로로 무궤도전차들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아름다운 구슬다락 경루동의 주인들이 우리 무궤도전차운행로선이라고 정담아 부르는 이 새 운행로선에는 어떤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이 한창이던 2021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비내리는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착공한지 불과 몇달만에 독특한 자태를 드러낸 다락식주택구의 전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앞으로 이곳에서 살게 될 주민들이 주택지구를 에돌지 않고 집에서 곧바로 내려와 교통수단을 리용할수 있게 걸음길도 잘 내주고 교통수단배치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몸소 우산을 드시고 가파로운 비탈길을 앞장에서 걸으시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새 문명을 또 하나 안겨주게 된것이 못내 만족하시여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일군들이 솟구치는 격정속에 자애로운 그 영상을 숭엄히 우러르는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자연기복을 그대로 살리면서 주택구를 형성하니 정말 보기 좋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신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였던것이다.

그들의 뇌리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에 새로 건설할 다락식주택구형성안을 지도해주시던 때의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날 형성안과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원수님께서는 문득 여기에서 가까운 지하철도역이 어디에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물으심에 일군들은 한순간 어리둥절하였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지하철도역에 대하여 물으시는지 영문을 알수 없었던것이다.

그런 속에 한 일군이 개선역이 있다고 대답을 올리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곳까지의 거리를 가늠해보시는듯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개선역까지는 거리가 너무 먼것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때 다른 일군이 승리역도 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원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반가우신듯 그곳까지는 몇분 걸리는가고 재차 물으시였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안에 못내 아쉬운 표정이 어리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여기에서 지하철도를 리용하자면 승리역이나 건설역을 리용해야 하겠는데 그 역들까지는 10분이상 걸어야 갈수 있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앞으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앞을 지나는 북새강안도로에 새 무궤도전차운행로선을 내와야 하겠다고 이르시는것이였다.

너무도 뜻밖의 말씀에 일군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 운행로선을 내오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며칠후 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서게 될 현지에 또다시 나오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다락식주택구건설의 중요성과 시공단위들이 도시주택건설의 본보기적경험을 창조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주시다가 전번에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앞으로 로선뻐스가 다닐수 있게 하라고 하였는데 로선조직을 어떻게 하고있는가에 대하여 다시금 알아보시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새 무궤도전차운행로선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고있는 사실을 보고드리였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화력—서평양무궤도전차로선을 보통문옆에서 돌려 무궤도전차가 북새강안거리와 영웅거리를 지나 지하철도 혁신역쪽으로 가게 하면 된다는것과 그렇게 하면 북새강안거리와 영웅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교통운수수단을 리용하기가 보다 편리해질것이라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깨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하나하나 찍어주시는 운행로선을 수첩에 또박또박 적어넣는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자리가 있는 보통강강안지구에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한 희한한 다락식주택구를 일떠세울것을 발기하시고 건설의 방향과 성과적인 수행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것만도 가슴뜨거운 일인데 앞으로 새 주택구에서 살게 될 주민들의 교통문제까지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구체적인 로선까지 정해주시니 인민을 위하시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정의 세계는 정녕 어디까지인가.

일군들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감회깊이 되새기고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에서 미학성을 보장하는 문제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상편리를 보장하는 문제도 중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속에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물결쳤다.

주민들의 생활상편리, 바로 그것이였다.

무슨 일을 하나 설계하고 실천하여도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최상최대로, 속속들이 도모하는것을 제1차적요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하기에 그이께서는 우리 조국력사가 알지 못하는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치시면서도 선편리성, 선미학성이라는 세상에 없는 인민사랑의 건설의 근본원칙도 밝혀주신것이 아니랴.

일군들의 눈앞에 환히 보이는것만 같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자리에 희한하게 일떠선 사회주의번화가—인민의 호화주택과 그앞을 지나 근로하는 인민의 행복과 웃음을 싣고 달리는 새 무궤도전차들이.

오늘날 아름다운 구슬다락에 넘치는 행복의 웃음소리를 더해주며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앞도로를 따라 새 무궤도전차들이 씽씽 오가게 된데는 바로 이런 감동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다.

□ 유산중의 유산

주체107(2018)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돌아보신데 이어 어느한 건설대상을 찾으시였다.

이날 건설장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 건설대상이야말로 자신께서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가장 하고싶었던 일들중의 하나이라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을 새겨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돌이켜보면 인민들을 위해 바치신 그이의 심혈과 로고는 얼마이며 그 위대한 헌신속에 마련된 창조의 재부들은 또 얼마이던가.

하건만 인민을 위한 설계도를 끝없이 펼치시며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그렇듯 심신을 깡그리 불태우시는것이다.

일군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이 또다시 울리였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정신은 나의 둘도 없는 인생관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중의 유산이다.

유산중의 유산!

그이의 심중의 토로가 일군들의 심장을 쩡 울리였다.

세상에 유산이라는것은 많고많다. 하지만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정신이 유산중의 유산이라는 말은 동서고금에 있어보지 못하였다.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자신의 둘도 없는 인생관으로, 삶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간직하실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중의 유산이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건설장을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이런 격정의 웨침이 절로 터져나왔다.

(오늘 우리 인민들이 누리는 모든 행복은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맞바꾸어지는것입니다!)

□ 미루어진 축하전문전달식

주체105(2016)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커다란 생산적성과를 이룩한데 대한 보고를 받게 되시였다.

전해에 이곳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해에 높은 생산적혁신을 일으켜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안고 혁신창조의 날과 달을 이어온 상원로동계급이 참으로 미덥고 대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한없는 사랑과 정을 담아 그들의 생산적성과에 대한 자료가 담긴 문건에 높이 평가한다는 친필을 새기시였다.

다음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당과 국가의 사업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원수님께서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세멘트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축하전문이나 축하문을 전달한 다음 련합기업소에서 지난해에 이룩한 생산적성과와 로력적위훈에 대하여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소개선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인 1월 16일 일군들을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상원로동계급의 투쟁성과를 또다시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준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이 소식을 한시바삐 상원땅에 알려주고싶었다. 그들이 이 감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크나큰 환희에 넘치랴싶어 일군들자신도 흥분되여있었다.

그러는 일군들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만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축하전문전달식을 그들이 휴식하는 일요일에 진행하지 말고 다음날인 18일에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이름할수 없는 격정이 일군들의 온몸을 휩싸안았다.

자신께서는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에 계시면서도 평범한 근로자들의 일요일휴식을 위해 깊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진정이 가슴후덥게 어려와서였다.

이렇게 되여 축하전문전달식은 18일에 진행되게 되였다. 후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미루어진 축하전문전달식에 깃든 감동깊은 사연을 알게 되였을 때 그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이 자애로운 어버이의 모습을 그리며 눈굽을 적시였다.

□ 하루종일 사진을 찍겠다시며

주체107(2018)년 7월말 어느날이였다.

해가 저물어가는 때였지만 삼복철이라 날씨는 몹시 무더웠다.

바로 이날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식들에게 멋있는 가방을 메워주고싶어하는 온 나라 부모들의 심정을 안으시고 새로 개건한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을 찾아주시였다.

공장정문을 지나 마당에서 마중나온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구내를 둘러보시였다.

공장건물은 물론 그 주변환경은 개건후에 일신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괜찮게 꾸렸다고, 원래 있던 건물을 헐어버리고 깨끗하게 꾸렸다고 치하해주시였다.

분에 넘치는 치하를 받아안은 공장일군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그이께 조금이라도 만족을 드린 기쁨으로 하여 환희가 넘쳐났다.

그러는 일군들과 함께 연혁소개실을 돌아보고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원 한가운데로 난 인도로를 따라 생산건물로 향하시였다.

갖가지 꽃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아담하게 꾸려진 공원을 지

나시며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가방생산에 필요한 부속자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할데 대하여서와 가방생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윽고 생산현장에 들어서시여 여러 공정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2층에 있는 재봉작업반으로 들어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일군에게 작업장이 덥지 않은가고 물으시였다.

삼복철이였던지라 작업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에게 혹시 더위로 하여 불편한 점이라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념려의 말씀이였다.

랭온풍기를 설치하여 무더운 여름에는 랭풍을 쏴주고있다는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메여줄 가방을 생산하는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였다.

이때였다.

공장일군이 원수님을 모실 날만 손꼽아 기다린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청을 그이께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의 청에서 공장종업원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시고 사진을 찍겠다고, 사진을 찍어서 생산만 정상화된다면 백번도 찍겠다고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생산된 가방들이 놓여있는 진렬대로 다가가시여 가방멜끈에 댄 해면의 두께를 가늠해보기도 하시고 재단작업장에 들리시여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개발한 자동칼날재단기도 보아주신 후 동행한 일군들에게 준비가 다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빨리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찍어서 일만 잘된다면 하루종일 사진을 찍겠다고 또다시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하루종일 사진을 찍겠다!

학생들에게 질좋고 맵시있는 멋쟁이가방을 메워주고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렬하시였으면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가방생산만 정상화된다면 백번이라도, 하루종일이라도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시랴.

눈시울이 뜨거워오르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생가방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식에게 제일 좋은 가방을 메워주고싶어하는것은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한개의 가방을 만들어도 자기 자식의 어깨에 메워줄 가방을 만드는 심정으로 품을 들여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당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가방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이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모든 학생가방을 세계적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때 경애하는 원수님께 일군이 촬영준비를 끝냈다고 보고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질좋은 학생가방을 더 많이 생산할 결의로 충만되여있는 로동자들과 일군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담긴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 귀중히 여기신 인민의 평가

강원도 김화군의 태풍피해상황을 놓고 마음을 놓지 못하고계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언제인가 도의 책임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피해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지금 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아 찬비를 맞으며 고생을 하고있겠는데 정말 걱정이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빨리 지어주어 안착된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당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거시여 큰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실무적대책들을 련이어 세워주시였다.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한시바삐 안정시키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신 적시적인 조치와 인민군군인들의 헌신적인 투쟁

에 의하여 김화군 읍지구는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피해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새롭게 변모되였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천지개벽된 이곳을 보고싶으시여 머나먼 길을 달려 찾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달라진 읍전경을 부감하시며 읍지구에 한개 도시가 형성된것이나 같다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즐비하게 늘어선 살림집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제 며칠 있으면 큰물피해로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던 인민들이 새집에 입사하게 되겠는데 이렇게 훌륭한 살림집에서 살게 되여 모두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때 뒤늦게야 련락을 받고 도착한 군일군이 그이께 인사를 올리였다.

그의 인사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살림집을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일군은 마치 준비라도 하고있었던것처럼 거침없이 말씀드리였다.

《지금 군내 인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으로 건설되는 살림집은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 솟아오른다고 좋아하였다니 정말 기쁘다고, 그것은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가장 값높은 평가이라고 하시면서 군내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더 바랄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군일군에게 우리는 당에 대한 인민들의 값높은 평가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런 평가를 받으니 감개무량하다고 말씀하시였다.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

이것이 인민들의 가장 값높은 평가!

군의 일군은 물론 동행한 일군들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며 격정에 휩싸여있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라고 하는 인민들의 너무도 소박한 말을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며 그것을 당에 대한 값높은 평가로 간직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군의 일군이 군내 인민들에게 원수님의 그 말씀을 꼭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최전연지역에까지 오시게 하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없다고,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라면 이 세상 그 어디에라도 찾아가고싶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인민의 어버이만이 토로할수 있는 더없는 진정이였다. 바로 이 순결무구한 진정이 인민들의 값높은 평가를 낳는것이 아닌가.

□ 애국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5(2016)년 11월 최전연에 위치한 어느한 섬방어대를 현지시찰하실 때였다.

방어대군인들의 생활과 전투동원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이곳의 지휘관에게 방어대에 분교가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너무도 뜻밖의 말씀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찌하여 분교에 대하여 물으시는지 그이의 의도를 미처 깨닫지 못한채 그곳 지휘관은 있다고 보고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둘러보시며 섬에 분교가 있다는데 웃단위 일군들이 후대관, 미래관을 바로가지고 교육사업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여보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고, 섬방어대들에 나갈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장이나 필기도구 같은것들을 가지고 내려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일군들의 가슴을 세찬 격정으로 높뛰게 하였다.

섬분교는 뭍에 있는 학교들에 비할바없이 작다.

하지만 그 자그마한 분교에서도 조국의 미래가 자라나고있기에 그이께서 이렇듯 깊이 관심하시는것이다.

모두 깊은 감동에 잠겨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생이 몇 명인가고 물으시였다.

그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섬분교들에 자원진출하는 교원들이 많은데 대하여서도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그런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할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애국자!

교육자들의 소행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와 땀을 서슴없이 바친 애국자들의 공로와 같이 값높이 보시며 섬분교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애국자라고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섬방어대 지휘관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몇명 안되는 자녀들을 위해 섬분교로 자원진출해오는 교원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감탄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정말 좋다고만 생각해온 그들이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원들의 소행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고 애국자라고 값높이 평가하시며 내세워주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고싶으시여 방어대의 군인들과 가족들, 아이들과 함께 분교의 교원들도 자신의 곁으로 불러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불러주시고 내세워주신 애국자들에 의해 섬분교에서는 오늘도 위대한 어버이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담아싣고 유정한 수업종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지고있다.

□ 로동자시인에게 하신 인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온 나라에 《봄향기》화장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신의주화장품공장을 찾으신것은 몇해전 6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장품직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화장도구생산실의 수수한 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다른 나라에서는 화장용붓을 생산하는 일을 수공업적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기계화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고 배합작업반에 이르시여서는 기술적특성이 복잡한 배합공정에 대한 작업반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는 우리 로동자들도 고도의 과학자수준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완성작업반으로 향하시였다.

그때 완성작업반의 무균화, 무진화된 작업장의 한 기대옆에는 공장에서 오랜 기간 일한 녀성로동자가 있었는데 그는 사회주의제도의 따사로운 혜택속에 자라난 현직작가, 로동자시인이기도 하였다.

오매에도 그립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고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울렁이는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며 기대의 작업과정을 세심히 살펴보고있던 그는 갑자기 눈앞이 확 밝아지는것만 같은 느낌에 머리를 들었다.

순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작업반복도에 들어서시여 그가 일하는 곳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이 맑은 유리칸막이를 통해 안겨왔다.

녀성로동자는 그만 자신을 잊고말았다. 그는 두손을 높이 들고 나어린 처녀애마냥 발을 동동 구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만세!》 하고 격정의 웨침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였고 일행의 시선이 그한테로 쏠리였을 때 공장지배인이 그이곁으로 다가가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저 동무가 바로 노래 <준마처녀>의 가사를 지은 우리 공장의 로동자시인입니다.》

이렇게 아뢰인 녀성지배인은 어려움도 잊고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노래 《준마처녀》의 처음 몇소절을 조용조용 불렀다.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
아니 글쎄 날 보고 준마란 처녀래요
…

그리고는 다시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이 노래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기 공장 종업원을 내세우고싶어하는 심정이 다분히 풍기는 녀성지배인의 응석기어린 이야기를 들으시고 만면이 환하게 웃으시였다.

《준마처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노래였다.

조국의 인민들이 불굴의 투쟁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시킨 력사적시기에 태여난 노래,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온 나라 근로자들에게 희열과 랑만을 북돋아준 노래가 아니였던가.

오늘도 시대의 명곡으로 인민의 사랑을 받는 그 노래의 가사를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녀성로동자가 지은것이 못내 기쁘고 대견하신 그이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지배인과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화장품직장 녀성로동자가 노래 《준마처녀》의 가사를 쓴 로동자시인이라는데 공장에 그런 재간둥이가 있는것은 자랑할만한 일이라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정하신 눈길이 수수한 작업복차림의 녀성로동자에게 다시 가닿았다.

이어 참으로 가슴뜨거운 화폭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녀성로동자를 향해 친히 머리숙여 인사를 하시는것이였다.

녀성로동자는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랐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직접 뵈온것만도 크나큰 영광인데 그이의 인사까지 받아안

왔으니 그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또 어데 있으랴.

일군들도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였다.

온 세계가 현시대의 가장 세련되고 로숙한 정치가, 탁월한 령도자로 떠받드는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하지만 인민을 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겸허하고 소탈하신것인가. 현지지도길에서 인민들이 열광의 환호를 올리며 따라설 때마다 진정어린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고 바다가의 물고기가공장에서 비린내가 물씬물씬 나는 작업복차림의 녀인들의 인사도 몸소 허리굽혀 받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런데 또 오늘은 수많은 군중도 아닌 단 한명의 평범한 로동자시인에게 자신의 진정넘친 례의를 표시하신것이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그이의 고결한 천품이 그 뜨거운 인사에 어려있었다. 자기의 일터에 성실한 로동의 땀을 묻으며 시인으로 자라난 한 녀성로동자의 성장과 그의 창작성과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열렬히 축하하시는 깊은 뜻이 절세위인의 그 인사에 담겨져있었다.

로동자시인에게 하신 인사!

정녕 그것은 로동계급에 대한 뜨거운 존중과 지극한 정의 발현이였으며 앞으로도 그들이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당부이고 따사로운 축복이였다.

《봄향기》질은 일터에 꽃펴난 이 이야기는 평범한 근로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열화같은 사랑, 그이의 특유한 위인적향기를 전하는 감동깊은 전설로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질것이다.

□ 교육자들에게 안겨주신 꽃다발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교육자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조국에서처럼 교육자들이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애국자, 직업적혁명가로 떠받들리우며 빛나는 삶을 누려가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주체108(2019)년 9월 6일이였다.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은 크나큰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게 되였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게 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신 그이의 해빛같은 모습을 우러르며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렸다.

그 시각 커다란 감격으로 끓어번지는 대회참가자들을 바라보는 일군들의 심정은 류달리 뜨거웠다. 이 력사의 순간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있는 그들이였다.

사실 기념촬영이 시작되기 바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나라의 전반적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태풍13호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문제를 기본의제로 하여 진행된 회의였다.

그 전날에만도 수시로 태풍13호에 대처할수 있는 대책적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불철주야로 사업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까지 지도하시며 태풍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부문별, 단위별, 지역별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으니 그이의 로고가 얼마나 크시였으랴.

일군들은 회의가 끝나자 경애하는 그이께서 잠시라도 휴식하실것을 간절히 바랐었다. 그러나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로고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곧장 촬영장으로 나오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해하는 일군들에게 태풍피해를 막는것도 중요하지만 교원대회참가자들을 만나 축하해주는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받아안은 충격은 컸다.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 각일각 닥쳐드는 이때에도 경애하는 그이의 마음속에는 교육자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쳤던것이다. 대회참가자들이 이 사연을 안다면 감격이 또 얼마나 크랴 하는 생각에 일군들은 눈굽이 쩌릿해났다.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키는 화폭은 그후에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답례하시며 촬영대로 다가가시자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정히 받쳐들고있던 남녀교원들이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오래동안 교육사업에 헌신하고있는 강좌장과 저 멀리 량강도 김정숙군 신파소학교에서 온 녀교원이였다.

먼저 김책공업종합대학 강좌장이 온 나라 전체 교육자들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그이께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이 꽃다발은 내가 받을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자신께서 받으셔야 할 꽃다발을 그에게 안겨주시는것이 아닌가.

너무도 뜻밖의 일이여서 강좌장은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그 광경을 목격하는 일군들도, 전체 대회참가자들도 이름할수 없는 격정이 북받쳐올라 목이 꽉 메였다.

이어 신파소학교에서 온 녀교원이 삼가 꽃다발을 드리자 원수님께서는 그 꽃다발도 그에게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인재농사를 잘하기 바란다고, 맡은 인재육성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들을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순간 촬영장은 거세찬 감격의 열파로 끓어번지였다.

(그 꽃다발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모두의 심장에서 이런 웨침이 울리고

있었다.

이 세상 가장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송이들을 모두 엮어 경애하는 그이께 드리고싶은것이 교육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하건만 천만의 마음이 깃든 그 꽃다발에도 자신의 진정을 담으시여 교육자들에게 안겨주시니 이런 사실이 그 언제 있었던가.

교육자들을 그토록 아끼시며 온 세상이 부럽도록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의 세계가 어려와 누구나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후대들을 키우고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한생을 바쳐가는 교원들을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내세우시며 교육자살림집건설도 몸소 발기하시고 건설 전 과정을 이끄시며 기울여주신 그 사랑,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시여서는 참다운 애국자들,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있는 사람들이라 뜻깊게 불러주시고 창립 70돐을 맞이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으신 그날에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에게 몸소 깊이 허리굽혀 인사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교육자들에게 온갖 특전과 한량없는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고도 오늘은 또 이렇게 자신께서 받으셔야 할 꽃다발까지 안겨주시니 교육자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과 정은 얼마나 강렬한것인가.

정녕 경애하는 그이께서 안겨주신 꽃다발에는 전체 대회참가자들, 아니 온 나라 교육자들에게 보내시는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축복이 어리여있었다. 그것은 교육자들모두가 조국의 미래를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 맡은 책임을 다해나가기를 바라시는 그이의 다함없는 믿음과 기대가 실린 이 세상 가장 큰 꽃다발이였다.

눈물없이 대할수 없는 감격의 화폭앞에서 일군들과 대회참가자들은 심장의 목소리를 한껏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이 나라 교육자들이야말로 이 세상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 물고기가공장에서 하신 인사

주체103(2014)년 11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며 인민을 찾아 끊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8호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을 때 있은 일이다.

물고기폭포 쏟아지는 부두와 만선기 날리며 돌아온 《단풍》호고기배, 금괴같은 물고기랭동블로크들이 가득 쌓인 랭동고를 만족속에 돌아보시며 그이께서는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정책을 교과서의 체계를 외우듯이 한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넋과 피와 땀으로 결사관철한 전위투사들이라고 값높은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절임창고로 향하시였다.

그때 그이앞에 또다시 흐뭇한 광경이 펼쳐졌다.

야외물고기가공장에는 방금 잡아들인 물고기가 무드기 쌓여있었는데 녀성들이 한창 선별작업을 하고있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신 그이께로 지배인이 다가서며 그들이 사업소 종업원들과 가족들이라고 말씀올리였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작업장에 모신 사업소종업원들과 가족들의 가슴마다에서는 뜨거운 격정의 파도가 일렁이였다.

산같이 쌓은 그리움을 터치며 한달음에 달려가 안기고싶은 심정이였지만 그들모두는 작업현장이 험하고 또 그이의 귀중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시키면 어찌하랴 하는 생각으로 울렁이는 가슴을 애써 누잦히며 눈물을 머금은채 계속 일손을 다그쳤다.

바로 그 순간에 만사람을 놀래우는 가슴뜨거운 화폭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들모두에게 먼저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는것이였다.

동행한 사업소의 일군들이 너무 송구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하는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마디마디 곡진한 정을 담아 물고기가공장에서 녀성들이 물고기를 가공하느라고 수고한다고, 작업하는 녀성들이

수산사업소 종업원가족들이라고 하는데 가족들까지 당의 수산정책관철에 떨쳐나섰다고, 수산사업소 종업원가족들이 물고기를 잡아왔다고 하면 모두가 스스로 달려나와 물고기운반과 가공을 맡아한다고 하는데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성실한 땀을 바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엄지손가락을 높이 쳐들어보이시며 수산사업소의 종업원들과 가족들은 모두가 투철한 당정책관철자, 애국자들이라고 치하해주시였다.

순간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물고기가공장에서 일하던 녀성들모두가 참고참던 눈물을 쏟으며 일제히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그들 한사람한사람을 자애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걸음을 옮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따라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정깊은 인사를 보내시였다.

진정 눈물없이 우러를수 없는 위대한 어버이의 그 모습앞에서 일군들은 목이 꽉 메여 종시 뜨거운것을 삼키고야말았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가슴깊이 새기시고 자신의 천만로고를 바치시여 이 땅에 사회주의바다향기 차넘치는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은덕만으로도 온 나라 어머니들과 병사들, 우리 인민모두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그이께서 평범한 수산사업소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수고를 헤아려 거듭거듭 인사를 하시였으니 그들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에 북받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였다.

그때 물고기가공장에서 일하던 녀성들은 모두가 온 한해 바다에서 살다싶이 하는 남편들과 아들들에게 편지를 한장 써도 집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원수님 기뻐하시게 물고기만 많이 잡아달라는 당부를 적어보내던 평범한 안해들과 어머니들이였다. 집중어로전투만 개시되면 스스로 사업소에 달려나와 철야작업을 벌리던 편제에 없는 종업원들이였다. 그때도 김장철이였건만 그들은 자기 집 김치독은 후에 채워도 우리 병사들에게 보내줄 물고기부터 사업소랭동고에 가득 쌓아야 한다고 하면서 앞을 다투어 떨쳐나섰었다.

바로 그 마음들이 그리도 소중하시였기에, 그들이 바쳐온 땀과 노력을 속속들이 헤아려보시였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토록 뜨거운 인사를 거듭거듭 보내주신것 아니랴.

이날 그이께서는 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 가족들이 오늘 자신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하시면서 물고기가공장에서 일하던 녀성들까지 다 불러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범한 녀성들에게 하신 인사!

정녕 그것은 그이의 위대한 심장에 간직된 인민에 대한 끝없는 존중의 발현인 동시에 자기 한가정보다 초소의 병사들을 먼저 생각할줄 알고 아낌없는 땀과 노력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받들줄 아는 동해포구의 성실한 녀성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고 뜨거운 격려였다.

□ 《매봉산》구두에 비낀 소원

주체108(2019)년 4월 어느날.

외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온 나라가 끝없이 설레이고 있던 그날 깊은 밤이였다.

집집의 창가마다에 흘러넘치던 불빛들도 꺼지고 삼라만상이 고요속에 잠겨있던 시각, 원산구두공장의 일군들은 뜻밖에도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커다란 기쁨과 함께 놀라움에 겨워 어쩔바를 몰라하는 공장일군들에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번에 진행된 전국신발전시회에서 원산구두공장에서 만든 신발들이 많이 팔렸다고 하기때문에 올해에 출품한 신발들을 보러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를 모시고 제화직장으로 향하는 공장일군들은 《매봉산》구두에 대한 인민들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소식이 얼마나 반가우시였으면 한밤중에 공장을 찾으시였으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잠시후 제화직장의 검사탁앞에 이르시여 생산된 신발들을 만족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신발을 신어보도록 하시고 신발이 편안한가, 발이 조이지 않는가에 대해 물으시였다.

신발이 편안하다는 한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신발이 조이지 않고 편안하면 좋다고 하시며 만족해하시였다.

도안실에 가시여서도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호평을 즐겁게 들으시며 만시름이 풀리신듯 시종 웃음속에 계시였다.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을 이어가시며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치신 그이께 잠시나마 기쁨을 드리게 된 공장일군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어리였다.

이윽하여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고 제품진렬실로 걸음을 옮기시는 경애하는 그이께 이곳 강사는 공장을 돌아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매봉산》구두가 멋있다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설명해드리면서 이것은 공장에 바쳐오신 원수님의 뜨거운 헌신의 결과이라고 말씀올리였다.

이때 한 일군이 우리 나라 타조목장에서 나온 타조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어보고나서 경애하는 그이께 신발이 정말 좋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구두공장에서 만든 《매봉산》구두를 신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가 되여야 한다고 의미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모두의 심금을 울려주는 말씀이였다.

인민들에게 차례지는 모든것은 세계최고의 수준이여야 한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는 공장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지방의 크지 않은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공장, 안팎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장으로 꾸려주시고도 공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매봉산》구두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이 되게 하시려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나날 경애하는 그이의 심중에 소중히 간직되여있은것은 인민들에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멋쟁이구두를 안겨주고싶으신 열망이 아

니였던가.

인민을 위하시는 불같은 진정, 간절한 소원을 안으시고 외국방문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깊은 밤에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공장을 떠나시기에 앞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구두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기대와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인민들이 선호하는 질좋은 신발을 더 훌륭히, 더 많이 생산해냄으로써 공장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계속 빛내여나가야 하겠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어느덧 시계의 바늘은 1시를 넘어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승용차의 불빛이 멀어져갈수록 공장일군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목소리를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이제 더는 밤길을 걷지 마시고 잠시라도 편히 쉬여주십시오. 원수님의 소원을 훌륭히 꽃피워 나라의 신발공업을 주도하는 맏아들공장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겠습니다!)

□ 로병들에게 하신 정깊은 당부

주체110(2021)년 7월 29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제7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기 위하여 평양체육관에 나오시였다.

주름진 두볼에 흐르는 눈물을 연방 닦으며 열광적으로 환호하던 로병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의 촬영대가까이로 다가오시자 너도나도 격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이께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그이께 저마끔 대회과정에 느낀 소감을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기도 하시고 한 전쟁로병이 허물없이 드리는 소청도 기꺼이 받아주기도 하시였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가슴설레이는 로병들속에는 아흔살이 가까

와오는 오늘까지도 교단에서 예술인재후비육성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녀성전쟁로병교육자도 있었다.

사실 그는 방금전까지도 경애하는 원수님께 무랍없이 안겨드는 로병들을 보면서 속으로 은근히 그들을 나무람하였다.

하지만 원수님께서 자기앞에 이르시는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그이 품에 와락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뵙고싶었습니다!》

그가 목메인 소리로 아뢰이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너무도 꿈만 같은 영광을 받아안은 로병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귀중한 시간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는 방금전의 마음속다짐도 다 잊고 그이의 따사로운 손길을 놓칠세라 두손으로 더 꼭 마주잡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로병의 손을 그냥 꼭 잡으신채 귀가에 대고 건강하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로병이 크나큰 행복감에 휩싸여있는데 그이께서는 그를 더 따뜻이 품어안으시며 다시금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건강하십시오!》

거듭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깊은 당부에 녀성전쟁로병은 그만 그이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고 뜨거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촬영대에서 다른 촬영대에로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자신께로 물밀듯이 안겨드는 수많은 로병들의 손을 한사람한사람 정겹게 잡아주시며 건강하라고 절절히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였다.

《건강하십시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당부에는 준엄한 전쟁의 3년간 피로써 사랑하는 조국을 영예롭게 사수한 고마운 은인, 대를 두고 이어갈 영웅정신을 마련하고 오늘도 그 넋으로 새세대들을 이끌어주는 참다운 스승, 훌륭한 혁명선배인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을 금방석에 편히 앉혀 오래오래 떠받들고싶으신 열화같은 진정이 담겨져있었다.

□ 몸소 찾아 내세워주신 애국농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민헌신의 길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훌륭한 애국자들을 찾아주시고 그 삶을 빛내여주시는 뜻깊은 길이기도 하다.

몇해전 12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제4차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때였다.

온 나라의 수많은 농장들과 작업반, 분조, 농장원들이 다수확단위, 다수확자대렬에 들어선 자랑을 안고 참가한 회의에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 참가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일흔살을 가까이한 나이에 회의에 참가하여 주석단에 앉는 영광을 지닌 양덕군 일암리의 주영덕로인이였다.

모범적인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하는 회의에 년로한 그가 참가하여 주석단에까지 앉은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에는 충분하였다.

그는 어떻게 되여 그런 남다른 영광을 받아안게 되였는가.

바야흐로 한해 농사를 결속하는 가을이 다가오고있던 2018년 8월중순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하루도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양덕군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문득 어느한 포전옆에서 달리던 차를 멈추게 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이 영문을 알수 없어 그이께서 타신 차곁으로 달려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로옆에 펼쳐진 포전에서 벼포기를 한대 뽑아오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친히 무게며 알수를 가늠해보시였다. 보기에도 충실한 벼포기는 포전의 작황이 산골농사치고는 통장훈을 부를수 있는 수준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한없는 기쁨에 잠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지가 휘게 탐스러운 벼이삭들이 주렁진 포전에서 한동안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그이께서 달리던 차를 멈춰세우신 사연을 알

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차창에 비껴흐르는 논밭도 무심히 보지 않으시고 류달리 작황이 좋아보이는 포전에서 차를 멈추게 하신것이였다.

(얼마나 농사문제를 두고 마음쓰시였으면…)

후에 일군들이 알아본데 의하면 그 포전은 저수확지이던것을 년로보장자인 마을의 주영덕로인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싶어 스스로 맡아 애지중지 가꾼 포전이였다. 한생을 농사일에 바치고도 인민들의 식량문제때문에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싶어 여생을 알곡증수에 바쳐가는 참된 애국자.

누가 보건말건 백옥같은 진정을 묻어 가꾸는 포전이여서 해가 다르게 지력은 높아졌고 평수도 나날이 늘어나 그해에는 보기에도 흐뭇한 작황이 펼쳐졌다. 바로 그런 남다른 사연이 깃든 포전을 어쩌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눈에 알아보시고 말없는 땅에 바친 한 실농군의 진정을 그처럼 소중히 헤아려주시였는지 생각할수록 일군들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그 소식에 접한 주영덕로인과 일암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이름할수 없는 뜨거움에 목메였다.

이 땅에 묻어가는 애국의 땀을 그처럼 소중히 헤아려주시며 대해같은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런 그들의 격정은 그해 12월 제4차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를 앞두고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업부문의 열성자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앞두고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시였던 양덕군 일암리의 크지 않은 포전에 대해 다시금 추억하시며 또다시 뜨거운 사랑을 베푸신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8월 양덕군 석탕온천지구를 료해하러 가다가 양덕군 일암리의 논밭옆에 차를 세우고 논벼작황을 료해하였는데 그 논밭은 농장 작업반장을 하다가 년로보장을 받고있는 농장부대로력자가 1 000평을 받아 벼농사를 짓고있는 포전이였다고 하시면서 그가 올해 그 포전에서 벼를 2t 400kg정도 수확하여 국가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고 많은 량의 알곡을 국가에 바쳤다고 한다고, 그도 농업부문열성자회의에 참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런 남다른 사연을 안고 제4차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에 참가하

여 주석단에 앉는 영광을 지닌 주영덕로인의 두볼로는 감사의 눈물, 격정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리였다.

그를 보며 회의참가자들 누구나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어찌 그것이 양덕군의 평범한 실농군이 받아안은 영광만이겠는가.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일년 내내 바람세찬 전야에서 헌신하는 농업근로자들의 수고를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주시며 그 삶을 값높이 빛내여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는 격정이 모두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차넘치였다.

하거늘 이 땅우에 주렁지는 다수확의 자랑찬 열매를 어찌 자연의 열매라고만 하겠는가.

정녕 그것은 조국을 위한 길에 바쳐가는 애국의 땀방울을 그처럼 귀중히 여겨주시며 값높이 빛내여주시는 절세위인의 사랑과 믿음이 주렁지우는 소중한 열매, 농업근로자들이 온넋으로 가꾸어가는 충성과 보답의 열매가 아니겠는가.

□ 제대군인부부에게 주신 축복

주체107(2018)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원도양묘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일군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양묘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시종 기쁨의 미소가 어리였다.

년간 2 00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대규모의 나무모생산기지로 멋들어지게 일떠선 양묘장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날 양묘장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친히 대책도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양묘장의 종업원들인 한 제대군인부부의 살림집을 방문하시였다.

꿈결에라도 뵈옵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집뜨락에서 만나뵈옵게 된 그들부부의 감격은 이루 형언할수 없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

을념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이 품으로 안겨들었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제대군인부부와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그들과 담화를 나누시면서 원수님께서는 새집이 살기 좋은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자식은 몇명이고 어느 학교를 다니는가, 제대되여 농업대학을 나왔다는데 공부하기가 힘들지 않았는가, 지금 하고있는 일은 힘들지 않은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집까지 찾아주시고 가정살림 형편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품에 안긴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한껏 어렸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신 맞은켠 벽면에 그들이 군사복무시절에 입던 군복이 나란히 걸려있는것을 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은 뜨거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제대군인부부를 정깊은 눈길로 바라보시며 이 동무들이 아직도 마음속의 군복을 벗지 않고 수령님들을 결사보위하던 혁명군대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살고있는것같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동무들이 지금 서있는 초소는 조국보위초소 못지 않게 중요한 당정책관철의 전초선이라고, 제대된 후에도 동무들이 당에서 걱정하고 제일로 중요시하는 초소에 서서 성실한 애국의 땀을 바쳐가고있는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들의 가슴은 세찬 격정으로 들먹이였다. 그러는 그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항상 마음속군복을 벗지 말고 우리 군대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고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며 가정이 행복하기 바란다고 하시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축복받은 제대군인부부!

어찌 그들만이 받아안은 축복이라고 할수 있으랴.

정녕 그것은 마음속의 군복을 벗지 않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에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온 나라 제대군인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의 축복이다.

2

위대한 **김정은**시대와 더불어 조국땅우에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창조물들이 얼마나 많이도 일떠섰으며 수도 평양으로부터 저 멀리 두메산골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이 얼마나 몰라보게 자기의 모습을 눈부시게 일신하였던가.

누구나 찬탄하는 이 놀라운 현실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마음속에 인민만을 두시고 위민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열정과 비상한 령도의 자욱자욱이 기적과 창조의 원천이 되여 맥맥히 흐르고있다.

□ 식료공장에 남기신 뜻깊은 자욱

중복을 이틀 앞둔 날이여서 한낮의 대기온도가 40℃를 가까이하고있던 주체107(2018)년 7월 어느날.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컥컥 막히는 삼복더위가 한창인 때인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찾아주시였다.

공장종업원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들은 오늘도 경애하는 그이께서 공장에 남기신 사랑과 헌신의 자욱자욱을 뜨겁게 추억하고있다.

공장을 찾으신 사연

무더위가 대지를 달구고있었건만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광에는 미소가 어려있었다.

공장의 전경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 한번 와보고싶었다고,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일하는것을 보고싶어 오늘 시간을 내여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질좋은 제품들을 쾅쾅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장에 현대적인 생산공정이 꾸려졌고 제품의 질이 높다고 아무리 선전하여도 인민들속에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지 못하고 인기가 없으면 일을 잘하는 공장이라고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들만큼 엄격한 검열원, 심사원은 없다고, 인민들이 만족해한다는것은 이 공장에서 질좋은 식료품생산으로 당정책의 정당성을 립증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을 돌아보시기도 전에 인민들의 평가를 받고있는것이 그토록 대견하시여 치하부터 해주시는 그이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한가지 제품을 생산하여도 질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공장의 일군들은 겉보기나 화려하고 생산량이 많다고 해서 일 잘하는 공장이 아니라 인민들이 평가하고 인민들이 즐겨 찾는 제품이라야 그 공장이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공장으로 된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공장일군들의 가슴은 흥분으로 달아올랐다.

그이께서 지방의 크지 않은 식료공장에 대해 그토록 관심하고계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공장이 이룩한 성과가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소나마 기쁨을 드렸다는것으로 하여 일군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여났다.

하지만 그들은 어찌하여 그이께서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공장을 찾아주시였는지 다 알지 못하였다.

오랜 시간 제품들의 질도 가늠해보시며 생산현장들을 일일이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밖으로 나오시였을 때였다.

그이의 옷자락은 흘러내리는 땀에 흠뻑 젖어있었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로고가 어려와 공장의 한 일군은 그이께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였다.

그러는 그를 정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는것은 한개 단위라도 본보기로 만들고 그 단위가 본보기로서의 영예, 명예를 계속 고수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본보기를 창조하고 전당, 전국이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투쟁방식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호평을 받는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식료공업의 본보기로 내세울수 있는 귀중한 싹을 찾아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여 인민들에게 질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 중복을 앞둔 제일 무더운 날이건만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공장일군들은 그처럼 분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복철의 폭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머나먼 동해기슭에 자리잡은 자기들의 공장을 찾아주신 사연을 그제야 알수 있었다.

해결방도에 대해서까지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과자1작업반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경질과자들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흐름선을 타고 줄줄이 나오는것을 보는 일군들의 가슴은 마냥 부풀어올랐다. 먼길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그이께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들을 쾅쾅 생산해내고있는 흐뭇한 광경을 보여드리게 된 긍지와 자부심에서였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만족하신 시선으로 생산공정을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질과자 한개를 집어드시고 유심히 살펴보시는것이였다.

(왜 그러실가?!)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모두가 그이의 곁으로 바싹 다가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의아해하는 일군들에게 경질과자의 량면에 색이 곱게 들지 않았다고 나직이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공장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오래동안 현장에서 제품을 다루어온 생산자들도 자기들이 생산한 과자를 다시금 눈여겨보았다.

그날 옷깃이 땀에 젖어드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20여개나 되는 공장의 생산공정들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고 복도로 나서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화제를 경질과자의 색갈문제에로 돌리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아무래도 과자구이로가 불비한것같다고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과자굽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구이로안의 온도와 반죽형성물이 로를 통과하는 시간을 기술적으로 잘 조절하여 지금보다 과자의 색이 더 고우면서도 고르롭게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공장일군들을 일깨워주시였다.

(그처럼 오랜 시간 현장을 돌아보시는 속에서도 원수님의 심중에

는 과자색갈문제가 좀처럼 가셔지지 않고있었구나. 그래서 그이께서 공장을 돌아보시며 금방 구워낸 경질과자의 맛도 보아주시고 50℃가 넘는 로실에까지 들어가보시였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지배인뿐만 아니라 공장의 일군들 누구나 그이의 숭고한 의도가 어려와 눈굽이 젖어들었다.

사실 그 경질과자의 색갈차이는 맛에까지 크게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자그마한 부족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드팀없는 신조를 지니신 경애하는 그이이시기에 크지 않은 과자의 색갈차이도 무심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해결방도에 대해서까지 깊이 생각하신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공장에서는 곧 과자구이로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였으며 공장일군들은 비로소 과자의 색갈차이가 로의 불비한 개소에 원인이 있었다는것을 발견할수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에게는 이 세상 가장 훌륭한것을 안겨주어야 하며 인민들에게 차례지는 제품은 완전무결한 명제품이 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위민헌신의 날과 날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날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이야기는 일군들이 어떻게 인민을 받들어야 하는가를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제일 반가운 소리

선질후량.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들을 찾으시면서 늘 강조하시는 문제이다. 그리고 생산과 건설현장에서 질을 중시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일군들이나 로동자들을 만나시면 제일 기뻐하시는분이 원수님이시다.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에 따라 도들에서 종합식료공장을 다 꾸려놓았는데 최

근에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이 소문을 내고있다고 하시면서 TV방송을 통하여 소개되는것을 보아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것을 들어보아도 그렇고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질좋은 제품들을 꽝꽝 생산하면서 경영활동을 아주 잘하고있다고 치하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질좋은 제품을 안겨줄데 대한 경애하는 그이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 한마음으로 일했을뿐인데 그자그마한 성과를 두고 그토록 값높은 평가를 주시니 일군들은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이윽고 여러 생산공정을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일군에게 각 도종합식료공장과 대비하면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자 일군은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선흥식료공장과 경쟁을 하려고 한다고 보고드리였다.

그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공장지배인이 다른 중앙급식료공장과 맞서보겠다는 그 각오가 좋다고, 응당 그렇게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이 중앙급식료공장과 맞서보겠다는 말은 듣던중 제일 반가운 소리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제일 반가운 소리.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줄 제품의 질을 두고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지방의 식료공장이 중앙급식료공장과 경쟁하겠다는 《도전》을 긍정해주시며 듣던중 제일 반가운 소리라고 그리도 기뻐하시였으랴.

일군들은 물론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접하고 자기들의 공장을 제품의 질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소문난 공장으로 빛내여갈 결의로 충만되여있었다.

좋은 욕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즉석국수작업반을 돌아보실 때 있은 일이다.

작업반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포장해놓은 즉석국수를 보시며 여기에 조미료가 다 들어가는가고 물으시였다.

갖가지 조미료가 다 들어간다는 공장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며 즉석국수포장실에 들어가시였다.

그곳에서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시 포장실에 들어가시였다가 나오시였다.

일군들이 영문을 몰라하며 그이를 우러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조용한 어조로 현장이 좁으니 복도까지 막아 제품을 포장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때 공장일군이 경애하는 그이께 원래의 한정된 생산면적에 설비를 처음보다 더 들여놓아 그렇게 되였다고 보고드리였다.

그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래의 생산면적에 설비를 더 들여놓아 그렇게 되였다는데 공장일군이 일하겠다고 욕심부리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좋은 욕심이라고 치하해주시였다.

좋은 욕심!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공장일군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름을 느꼈다.

공장을 찾아 생산현장을 돌아본 도내의 일군들, 중앙급일군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 많은 사람들중에 비좁게 들여놓은 설비를 보면서 작업현장이 번듯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었어도 한가지 제품이라도 가지수를 더 늘여 생산을 늘이려는 공장일군의 참된 속마음을 헤아려준 일군이 과연 한사람이라도 있었던가.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은 조금이나마 질좋은 식료품의 증

산을 위해 애쓴 마음을 두고 그것을 좋은 욕심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는것이 아닌가.

공장일군은 어떻게 하나 생산을 늘이려고 애쓰고 노력한 자기들의 수고를 깊이 헤아리시고 치하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질좋은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으로 보답하리라 굳게 마음다지였다.

□ 작아진 폭포소리

주체102(2013)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시였다.

문건과 설계상으로는 물론이고 건설현장에도 여러 차례 나오시여 모든 개소들을 손금보듯 환히 알고계시였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준공식을 앞둔 이날에도 또다시 현지에 나오시여 단 한점의 미흡한 요소라도 있을세라 사랑의 자욱자욱을 뜨겁게 수놓으시였다.

이날 실내물놀이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문득 인공폭포에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한동안 인공폭포를 주의깊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실내물놀이장의 폭포에서 나는 물소리가 지내 크다고, 실내물놀이장의 폭포에서 나는 소음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뜨거워졌다. 사실 일군들은 그 폭포소리에 오히려 매력을 느끼면서 마치 물놀이장의 이채로움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실내에서 폭포소리가 크면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줄수 있다고 보시였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물놀이장의 폭포소리는 작아지게 되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이, 더 세차게 울리는것이 있었다.

바로 그것은 어떤 일에서나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해야 한다는 절세위인의 간곡한 당부였다.

□ 승리의 동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꾸려진 가방용천생산공정을 료해하시기 위하여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먼저 공장에서 생산한 가방용천을 가지고 만든 여러가지 학생용가방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가방용천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유연창대직기와 고온고압로라염색기를 비롯하여 모든 설비들에는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온 공장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피타는 노력이 력력히 깃들어있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공정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다소나마 경애하는 그이께 기쁨을 드린것으로 하여 공장의 일군들의 얼굴마다엔 웃음꽃이 만발했다.

그러는 공장일군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가방용천생산공정에 갖추어진 모든 설비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창조적인 지혜와 열정이 깃든 명실공히 우리의것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종업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에 울려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 자력갱생의 동음은 머지않아 세상만복을 누리며 살게 될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혁명승리의 동음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혁명승리의 동음!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그토록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뜻을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길에 부강조국건설의 승리적전진도, 휘황찬란한 미래도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 석재에 자존심이 어려있다

주체102(2013)년 9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어느한 공장을 찾아주시였다.

톱으로 나무를 썰듯이 천연석재들을 척척 잘라내는 절단기들과 복잡한 기하학적곡선, 곡면을 요구하는 석재들을 마음먹은대로 가공하고있는 CNC설비들의 가동정형을 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첨단돌가공설비들이라고 만족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든 설비들이 용을 쓰며 돌아가고있는것이 대단히 기쁘다고,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종류의 석재들의 질도 대단히 높다고 평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의 머나먼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오히려 자기들이 이룩한 성과를 두고 그처럼 값높이 평가해주시는 그이의 사랑과 믿음에 공장일군들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시장에 전시된 여러가지 석재견본과 돌가공품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이 전시장은 석재전시장이라기보다 하나의 돌궁전과 같다고 하시면서 못내 기뻐하시였다.

일군들도 기쁨을 금치 못해하며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공장에서 생산하는 석재에 우리의 자존심이 어려있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석재에 우리의 자존심이 어려있다!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을 가지고 자기의 식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의지가 어린 가르치심이였다.

□ 평가속에 새겨주신 참뜻

주체105(2016)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아주시였다.

그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생산실태도 료해하시고 로동자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것은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질데 대한 문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꾸린 어느한 생산현장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그곳에 있는 설비가 현대적이라는것을 대뜸 알아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어조로 이 설비를 정말 우리자체로 만들었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지난 시기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던것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심어주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수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올리였다.

사실 그 설비를 사오자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공장에서는 설비를 자체로 만들 결심을 하고 여기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았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첨단수준의 생산공정을 무조건 일떠세워야 한다.

공장에서는 이런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과의 련계밑에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마침내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훌륭히 꾸려놓았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여드릴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손수 보호창문들을 열어제끼고 설비의 내외부를 보고 또 보아주시였다.

그러신 다음 이것이 진짜 우리가 만든것인가고 물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설비제작에 기여한 어느한 대학의 연구사를 친히 불러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대단하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거듭 치하해주시며 그이께서는 설계도면도 없이 사진 한장을 가지고 이런 현대적인 생산설비를 만든것은 대단한 성과이라고, 이것만 보아도 조선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값높은 평가를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그속에 깊이 새겨주신 참뜻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나갈수 있게 하는 비약의 열쇠는 다름아닌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데 있다는것을,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킬 때 생산적앙양과 비약을 일으켜 나갈수 있다는 고귀한 철리를.

□ 지척과 만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5(2016)년 8월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이날 생산공정의 요소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며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고 설비들도 모두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제작하였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정말 좋은것을 보았다고,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새로 꾸린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돌아보고 가슴이 뭉클하도록 기쁜것은 단순히 우리 식의 아크릴계칠감을 생산하는것을 보게 된것만이 아니라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화학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절감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크릴계칠감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도록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신 심혈과 로고는 그 얼마였던가. 기업소에서 이룩한 성과, 정녕 그것은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로 새것을 창조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완강하게 투쟁한 결과에 마련된 자랑찬 결실인것이다.

뜨거운 격정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이고 남의 힘을 믿으면 지척도 만리라고 강조하시였다.

지척과 만리!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주체적힘의 위력에 대해 지척과 만리라는 두 단어로 함축하여 통속적으로 깨우쳐주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은 다시금 숭엄한 감정에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생산공정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였다.

일군들의 가슴마다에서는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이 커다란 메아리가 되여 끝없이 울리였다.

자기 힘을 믿으면 만리도 지척이고 남의 힘을 믿으면 지척도 만리이다!

□ 건설물의 평가기준

주체104(2015)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개건된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안팎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였다고, 생산건물과 문화후생시설, 사무청사도 다 훌륭하다고, 개건공사를 아기자기하게 잘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원산구두공장은 안팎으로 흠잡을데 없는 만점짜리 공장이며 경공업부문의 표본공장, 본보기공장이라고, 원산구두공장은 후대들에게 물려주어도 손색이 없는 나라의 훌륭한 재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종업원들이 공장을 로동자궁전이라고 부른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원산구두공장 종업원들이 공장을 로동자궁전이라고 한다는데 그럴만하다고, 새로 개건한 원산구

두공장이 바로 우리 당이 바라고 인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건설물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무엇을 하나 건설하여도 원산구두공장처럼 손색이 없게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인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건설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가르치심에는 건설물에 대한 평가기준은 철두철미 인민들의 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데 있다는 숭고한 뜻이 어려있었다.

□ 국수맛까지 보아주시다

주체104(2015)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종합생산공정도》사판을 보아주시며 공장의 생산능력에 대하여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일군에게 강냉이국수의 맛이 어떤가고 물어주시였다.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한해전의 일이 떠올랐다.

어느한 식당에서 맛있고 특색있는 강냉이국수를 만들어 수도시민들에게 봉사하고있는데 대하여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냉이국수의 맛을 몸소 보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강냉이국수가 정말 맛있다고 평가해주시며 국수를 더 맛좋게 만들기 위한 방법도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던것이다.

그날을 돌이켜보며 일군은 지금 공장에서 생산하는 국수의 맛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해전에 맛보아주신 국수의 맛과 꼭같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국수맛이면 괜찮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맛보아주신 강냉이국수로 말하면 국수감은 물론 꾸미까지도 평범한 수도시민들에게 봉사하는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것이였다.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의 심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온

세상에 대고 심중의 고백을 터놓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들이 리용할 강냉이국수맛까지 보아주시는 그런 국가령도자가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는가고.

정녕 마음속에 언제나 인민을 두시고 인민들에게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마음쓰시는 절세위인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고.

□ 즉석에서 내놓으신 명안

주체107(2018)년 5월말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완공된 고암—답촌철길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배를 타시고 석전만다리옆에 있는 부두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암—답촌철길건설총계획도》앞에서 건설진행과정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다리입구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두줄기 철길을 머리에 이고 날바다를 가로질러 쭉 뻗어간 석전만다리는 그야말로 장관이였다.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다리를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고암—답촌철길이 완공된것은 막혔던 숨길이 열린것이나 같다고 하시면서 석전만다리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이며 우리자체의 힘으로 이 땅에 기념비적창조물을 또 하나 일떠세웠으니 정말 일하는 보람이 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다리건설에 자기들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친 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을 그려보시는가 완공된 철길을 오래동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석전만다리의 철길과 시설물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리우에 올라서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다리우를 지나간 철길과 걸음길을 유심히 보시였다. 철길과 걸음길을 엇바꾸어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누구에게라 없이 석전만다리가 완공되고보니 한가지 아쉬운것이 있다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일군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러는 그들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이 다리를 렬차뿐 아니라 자동차도 다닐수 있게 건설하지 못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다리의 폭을 좀더 넓혀 자동차까지 다닐수 있게 하였더라면 이 다리가 그야말로 멋쟁이다리로 되였을것이라고 하시며 못내 서운해하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리에 자동차도로를 내면 어기지 못할것같다고 보고드리였다.

그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석전만다리의 철길부분을 평양시에 놓은 궤도전차로선처럼 레루 웃면과 도로면의 높이가 같은 자동차도로로 만들면 될것이라고, 철길부분의 폭이 좁아 자동차들이 어길수 없을것같다고 하는데 다리의 량쪽입구에 교통신호장치를 해놓고 자동차가 한방향으로만 다니게 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하자고 하면 못할것이 없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즉석에서 내놓으신 참으로 신통한 명안이였다.

이어 자동차도 다니고 기차도 다닐수 있는 다리로 개건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석전만다리로 렬차뿐 아니라 자동차도 다니게 할수 없겠는가 하는것을 연구해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석전만다리로 자동차까지 다닐수 있게 되면 다리가 다용도화되여 경제적효과성이 더 높아질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 다녀가신 후 해당 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놓으신 명안에 기초하여 연구를 심화시켰다. 그리하여 다리의 구조적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기차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닐수 있게 설계를 만점짜리로 완성하였으며 이어 개건사업도 빠른 시일에 끝내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즉석에서 내놓으신 명안에 따라 렬차만 다니게 되여있던 석전만다리가 자동차도 다닐수 있는 다용도화된 다리로,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멋쟁이다리로 건설됨으로써 석전만일대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의 미술작품같았다.

오늘도 그날의 사연을 전하며 석전만의 푸른 물은 끝없이 출렁이고있다.

□ 새로 설치된 채양

창전거리건설이 한창이던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살림집을 비롯한 여러 대상들의 건설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시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상업봉사망들의 건설실태를 알아보시고 그 부족점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신 그이께서는 한 야외매대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매대에 이르시여 그 안팎의 꾸밈새를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매대 웃부분에서 눈길을 멈추시였다.

한동안 그곳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매대들에는 채양이 있어야 한다고, 앞으로 야외에 설비하는 매대들에는 채양을 꼭 달아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인민들이 비를 맞지 않는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일군들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인민들이 잠시나마 비를 맞을세라 걱정하시며 누구도 생각지 못한 야외매대의 채양문제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니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다심한 사랑을 어디에 비길수 있으랴.

그후 야외매대들에는 채양이 설치되게 되였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신통하다고 좋아는 하였겠지만 그 채양이 이렇듯 인민의 어버이의 다심한 은정속에 생겨난것임을 미처 알지 못하였을것이다.

새로 설치된 채양, 비록 그것은 크지 않아도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인가를 전하고있다.

□ 달라진 건설목표

주체105(2016)년 9월 200일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0일전투를 큰물피해복구에로 방향전환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려명거리건설도 당분간 중지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아니 려명거리건설을 중지하다니?! 려명거리건설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전으로 선포하고 올해말까지 끝내는것으로 계획한 중요한 건설이 아닌가.)

서로의 얼굴을 주시하며 일군들이 설레였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큰물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았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려명거리를 건설할수 없다고, 설사 려명거리건설을 완공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성과라고 할수 없다고 하시며 우리가 려명거리를 일떠세우는것도 다 인민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세차게 고패쳤다.

려명거리건설의 중지와 큰물피해복구에로의 방향전환, 정녕 이것은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용단이였고 사랑의 조치였다.

달라진 건설목표.

이를 두고 건설일군들과 온 나라 인민들 특히 피해지역의 인민들이 평양하늘을 바라보며 감격에 목메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 사연깊은 공장

몇해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오랜 시간 국가과학원의 사업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성과를 보기 전에 과학자, 기술자들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 과학원의 후방토대가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는 후방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년차적으로 잘해나가야 한다고 이르시며 국가과학원에 현대적인 돼지공장을 건설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눈앞에 여러해전 자기들의 일터를 찾으시였던 그이의 거룩한 자욱이 되새겨졌다.

못잊을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에 과학자들에게 물고기를 보내주었는데 그들이 물고기를 받아안고 대단히 좋아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과학자들이 신발끈도 풀어보지 못한채 새해 첫 진군길에 뛰여들었는데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설명절을 맞으며 물고기를 또 보내주겠으니 함흥분원을 비롯한 국가과학원안의 여러 단위에도 보내줄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보내주신 물고기들을 또다시 받아안으며 과학자들은 그 얼마나 가슴을 들먹이였던가.

그로부터 며칠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이 휴양소로 오고갈 때를 비롯하여 늘 리용할수 있도록 대형뻐스와 중형뻐스들을 보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렇듯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주시고도 오늘은 또 과학자, 기

술자들을 위한 돼지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뜻깊은 조치를 취해주시니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깊은 사랑을 어디에 비길수 있단 말인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돼지공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할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운영하여 과학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면서도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되게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과학기술성과를 보기 전에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 그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도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런 각별한 사랑속에 일떠선 사연깊은 공장이였다.

은정돼지공장 준공식이 진행되는 날 국가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마음속격정을 끝없이 터치였다.

세상에는 과학자들이 많지만 우리 과학자들처럼 절세위인의 뜨거운 사랑속에 행복하고 긍지높은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 현지에서 펼쳐주신 설계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염분진호텔건설장을 찾으셨을 때이다.

마중나온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내부에 들어가보자고 하시며 현관부를 지나 계단으로 오르시여 연회장에 이르시였다.

연회장 로대에 손을 얹으시고 넓게 펼쳐진 바다를 부감하시다가 오른쪽에 있는 해수욕장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회장 로대에서 보니 호텔주변의 경치가 기가 막히게 좋다고, 이런 경치는 어디 가서도 보지 못할것같다고 흥그러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호텔만 하나 짓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의아해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염분진호텔구획을 염분혁명사적지로 가는 굴입구까지 확장하고 그 구간에 있

는 백사장과 소나무숲에 여러가지 봉사시설을 배치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염분진호텔로부터 염분혁명사적지로 가는 굴입구까지의 구간이 하나의 멋있는 구역으로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염분진지구는 철길과 도로가 가까이에 있으므로 교통조건이 좋다고, 여기에 염분진호텔과 봉사시설들을 꾸리면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호텔도 살아나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여기에 봉사시설을 갖춘 해안공원을 멋있게 꾸려놓고 도안의 인민들은 물론 출장길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문명한 문화정서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에게 안겨줄 새로운 문화휴양기지건설을 친히 구상하시고 그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앞에는 새롭게 꾸려질 해안공원의 면모가 선명하게 펼쳐지는것만 같았다.

해안가에서 터져오를 인민들의 기쁨넘친 웃음소리를 들으시는듯 열정에 넘치시여 바다기슭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삼대직폭포도 로정에 포함시킬수 있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있는데 그 폭포의 경치는 그 어디에 가서도 볼수 없는 희한한 절경이라고, 삼대직폭포로 가는 도로를 내고 경성군에 왔던 사람들이 다 그 폭포를 가보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삼대직폭포까지 뻐스를 운행하여 호텔에 든 손님들이 거기에 가서 폭포구경과 등산을 할수 있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건설장현지에서 펼쳐주신 휘황한 설계도!

이에 따라 호텔 하나만 외로이 서있게 되였던 이곳 염분진 바다가기슭에 주변경치와 잘 어울리는 해안공원과 여러가지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일떠서게 되였으니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바다가에 휴양와서 맑고 푸른 동해의 바다물에 몸을 잠그고 물놀이하는 재미도 이를데없는데 어디서도 볼수 없는 폭포의 장쾌한 모습을 구경하며 등산의 진맛을 한껏 체감하고 뜨끈한 온천물에 온 하

루에 쌓인 로독까지 풀게 하는 이곳의 휴양생활,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다시없을 행복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정녕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무한대의 세계이다.

□ 선밥을 지은것이나 같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화군을 찾으시여 피해복구공사추진정형을 료해하실 때였다.

그이께 해당 부문 일군이 80%계선에서 공사를 다그치고있다고 보고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일군들에게 여기 피해상황이 정말 처참하였는데 이젠 됐다고, 피해복구에 인민군대를 동원시키기 정말 잘하였다고, 시대적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우리 당이 구상하는 리상문명사회에 어울리는 문화주택들에서 재난을 당하였던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없다고 하시면서 그처럼 기쁘고 보람있는 일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공사가 마감계선에서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직관도앞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시며 읍지구 살림집이 이 정도이면 수준이 있다고 조용히 뇌이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군인들이 살림집골조를 5~7일동안에 끝내는것을 보고 김화군인민들이 자기들이 밥짓는 속도보다 더 빨리 살림집이 솟아난다고 말하면서 정말 좋아하고있다는데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새로운 표현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였다니 정말 기쁘다고, 인민들의 솔직하고도 꾸밈없는 목소리에 힘이 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다음이였다.

살림집의 시공상태와 외벽을 비롯하여 요소요소들을 주의깊게 살

펴보시던 그이께서 갑자기 안색을 흐리시였다.

일군들은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했다. 그러던 그들이 주위를 세심히 관찰하니 건설을 하면서 시한부를 정해놓고 속도일면에만 치우쳐 살림집외벽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건설공법의 요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허점들이 요소마다에 나타나있었다.

일군들자신부터가 조급성에 사로잡혀 질보장에 낯을 덜 돌리다나니 그만한 허물쯤은 있을수 있는 현상으로 여기면서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죄스러움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화군 읍지구에 새로 건설하는 살림집들이 솟아나는것을 보고 이곳 주민들이 밥짓는 속도보다 집짓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였는데 질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였으니 선밥을 지은것이나 같이 되였다고 질책하시면서 읍지구 전망계획을 다시 세워 질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선밥을 지은것이나 같다!

너무도 생동하고 통속적인 표현으로 질보장을 제대로 못하고있는 자기들의 결함을 지적해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은 다시금 큰 충격을 받아안았다. 그리고 밥짓는 속도보다 집짓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던 인민들앞에도 부끄러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책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보시며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복구건설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데 속도일면에만 치우치지 말고 설계와 시공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존중의 관점과 원칙에 의하여 전개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인민을 가장 신성한 존재로 여기시고 운명의 하늘로 떠받드시는 인민의 어버이.

바로 그러한분이시기에 재난으로 집을 잃은 인민들에게 선밥을 지은것이나 같은 질이 보장되지 않은 집을 절대로 안겨주실수가 없으시였다. 어느 면으로 보나 손색이 없는 살림집을 안겨주고싶으시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모든 건설물을 일떠세움에 있어서 속도와 함께 질보장문제를 인민에 대한 관점상의 문제로 보시고 그토록 요구성을 높이시는것이였다.

□ 의료기구 하나에도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보건부문의 물질적토대를 축성하는데서 필수적요소인 의료기구생산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고계신다.

주체108(2019)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찾아주시였다.

마중나온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총조립장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조립장 오른쪽에 놓여있는 만능수술대를 보시며 어디서 만들었는가고 물으시였다.

만능수술대를 개발제작한 연구사가 한발자국 나서며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말씀올리였다.

그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만능수술대의 의장품이 그만하면 보기가 일없다고 하시면서 그렇지만 의료기구는 가죽이나 씌우고 해면이나 넣어 멋있게 만들면 완성되는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만능수술대가 조작상측면과 기능상측면에서 어떤지 모르겠다고, 의료기구들은 그것을 실지 다루는 의사들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그 연구사가 수술대의 용도와 특성에 대하여 설명해드리였다.

연구사의 설명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수술대로 다가가시여 팔굽으로 수술대를 누르시면서 조작해보라고 이르시였다.

수술대에 설치된 전동식장치가 동작하면서 수술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수술대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만능수술대의 동작속도가 느리다고, 지금 침대에 사람이 눕지 않았는데도 속도가 뜬데 사람이 누우면 더 떠질것이라고 하시면서 수술대의 부족

점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수술대머리부쪽으로 가신 원수님께서는 수술대등판을 낮추라고 하시고 수술대의 머리부분을 팔굽으로 누르시면서 수술대등판을 올려보라고 다시 이르시였다.

수술대등판의 움직이는 속도를 가늠해보신 그이께서는 만능수술대에 하중이 실리니 동작속도가 떠진다고 하시면서 실지 사람을 눕혀놓고 치료조작을 할 때 만능수술대의 관절부분을 비롯한 모든 요소들의 동작이 제대로 수행되는가 하는것은 수술대의 세부적인 질적지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만능수술대의 동작속도를 빠르게 하여야 한다고 그 방도적문제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이런 문제들을 전문의사들과 협의해볼데 대하여서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 만능수술대 하나만이 아닌 인민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의료기구 하나하나에 인민을 그리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가 깃들어있음을 사람들이여, 부디 잊지 마시라.

□ 체육관의 이모저모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였을 때 있은 일이다.

그이께서 제일먼저 들리신 곳은 체육관이였다.

체육관에 들어서시여 내부를 둘러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체육관내부가 어둡다고 하시면서 관람홀은 일없는데 경기홀은 어둡다고 지적하시였다.

당시 궁전체육관에는 조명등이 벽면에 설치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관에 조도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체육관의 조명등을 벽체에 설치하였는데 간접조명을 하는 식으로 설치하여서는 조도를 충분히 보장할수 없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총장에게 소조운영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가고 물으

시였다.

소조운영시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겨울철에는 해가 인차 지므로 지금의 조명조건에서는 어두워 운동을 제대로 할수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심한 가책으로 머리를 들수 없었다.

매일과 같이 소조운영을 지도하는 자신들도 조명이 좀 어둡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아이들이 운동하면서 불편을 느낄수 있다는데 대하여서도 생각은 하면서도 대책을 세울념은 못하였다.

그이께서 롱구장에 들리셨을 때였다.

롱구장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롱구장규격을 가늠해보시고 동행한 일군들에게 체육관이 작다고, 그러다보니 경기홀에 꾸려놓은 롱구장도 규정대로 되여있지 못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지금처럼 롱구장을 꾸리면 롱구를 하다가 선수들이 롱구대나 담벽에 부딪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해주시였다.

탁구소조실에 들리시여 소조원들이 탁구를 잘 친다고 치하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탈의실과 샤와실이 웃층에 있다는것을 아시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궁전일군으로부터 그 원인에 대하여 들으시고 소조실을 두개 방으로 만들면서 2층으로 옮겼다는데 잘못되였다고 하시면서 탈의실과 샤와실은 탁구소조실옆에 꾸려야 한다고 세심히 일깨워주시였다.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의 눈은 밝다.

체육관의 이모저모에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며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꼭 친어버이의 모습 그대로였다.

궁전일군들은 온 나라 아이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육친의 정과 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에 머리가 숙어짐을 어쩔수 없었다.

□ 금야흑송

조국의 산들에 하루빨리 푸른 숲을 무성하게 펼치실 불같은 열망을 안으시고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장정에 새겨진 감동깊은 이야기들가운데는 금야흑송이 태여나게 된 사연도 있다.

주체108(2019)년 5월초 어느날이였다.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바쳐가시며 인민군대의 작전전투능력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은 경애하는 그이의 천금같은 가르치심을 자자구구 가슴속에 새기며 새로운 신심과 각오로 가슴들먹이였다.

이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을 끊으시고 감시소주변의 나무들을 한동안 눈여겨보시다가 무슨 나무인가고 물으시는것이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일군들의 눈길이 일시에 그 나무들에로 쏠리였다.

줄기는 검은 밤색을 띠고 아지마다 진한 풀색의 바늘잎이 소담하게 덮여있었는데 어른의 키를 훨씬 넘어 름름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다.

유심히 살펴보니 흔히 보는 소나무와 일정한 차이가 있었지만 방금전까지도 누구라 없이 무심히 여겼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사력강화를 위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 속에서도 그 나무의 유별함을 대뜸 직감하시였던것이다.

주둔부대의 지휘성원이 경애하는 그이께 그 나무는 흑송이며 여기에 자라는 흑송은 한해에 보통 수십㎝, 최고 110㎝까지 자란다고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렇게 빨리 자라는 나무도 있는가고 하시며 심산속에서 진귀한 보물을 찾으신듯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뇌리에는 그날 새벽에 있은 일이 떠올랐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훈련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현지에 나오신것은 먼동이 푸름푸름 밝아오던무렵이였다.

쉬임없이 기슭을 치는 파도소리가 유정한 정서를 자아내고 상긋한 솔향기가 새벽공기의 청신함을 더해주고있었다.

소나무들이 키돋움하며 우듬지를 한껏 쳐든 울창한 숲속을 거니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안에는 밝은 미소가 어리였다.

소나무가 많다고, 경치가 정말 좋다고 하시는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고요한 새벽대기를 흔들며 메아리쳤다.

폐부에 스며드는 싱그러운 솔향기에 마음 흥그러워지는듯 동행한 일군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여났다.

동해기슭의 이채로운 정취에 휩싸여 모두가 즐겁게 걸음을 옮기는데 앞서 걸으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 문득 멈춰서시는것이였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만큼 무성한 잎새를 펼친 소나무들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여기 소나무들은 송충피해를 받지 않은것 같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밑둥의 흙을 파보라고 이르시였다.

한 일군이 서둘러 소나무주변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허리를 굽히신채 나무밑둥을 한동안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정말 송충이 없다고 하시며 기뻐하시였다.

일군들은 머리가 숙어졌다. 자기들은 솔향기에 파묻혀 즐거움에 겨워있었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시각에도 나라의 산림을 두고 마음쓰시였다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던것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빨리 자라는 특이한 나무에 각별히 관심을 돌리시자 주둔부대 지휘성원이 흥분에 겨워 이 나무가 바다가에 뿌리내리게 된 사연을 자상히 말씀드리였다.

금야군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통천지방에서 자라는 흑송에서 채취한 종자를 가져다가 몇해동안 노력하여 풍토순화시킨데 대하여서와 주둔부대 군인들이 군산림경영소에서 수만그루의 나무모를

가져다 심은데 대하여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애국자들의 고심어린 노력이 슴배인 좋은 수종의 나무를 찾게 되신것이 더없이 기쁘신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흑송이 해안지대에서 잘 자라는데 다른 소나무들보다 해풍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고 한다고, 2015년에 금야군산림경영소에서 생산한 30㎝크기의 흑송묘목을 해안가에 심었는데 한해에 60㎝정도 자랐다고 한다고, 그에 대하여 산림부문에 알려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푸른 숲 우거질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또 하나의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숙연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채로운 나무들에 시선을 얹으신채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이 나무의 이름을 《금야흑송》이라고 짓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금야흑송!

정녕 그것은 이 땅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자신의 살붙이처럼 여기시며 나라의 재부를 하나라도 더 늘이시려고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애국심이 어린 뜻깊은 이름이였다.

그 이름에 조국산천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온 나라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기를 바라시는 절세의 애국자의 크나큰 기대가 어려있는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애국의 세계를 전하며 금야흑송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무성해질것이며 사연깊은 그 이름은 조국의 푸른 숲의 새 력사에, 인민의 마음속에 길이 새겨질것이다.

□ 간곡한 당부

주체110(2021)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비내리는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현장을 찾으시였다.

풍치수려한 보통강강안의 명당자리에 웅장화려한 자태를 드러낸 주택구는 볼수록 만사람의 감탄을 자아냈다.

불과 몇달만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140여일동안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를 일떠세운것처럼 앞으로 140년을 내다보고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결심을 하나하나 책임적으로 내려야 한다.

우리는 힘들어도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건설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5년동안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한다.

그 기간에 평양시에 계획대로 5만세대를 건설하고 수도의 자연생태환경을 개선하며 문명화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평양시에 구획별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와 같은 현대적인 대상들을 창조하면서 5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면 우리 나라가 수도의 살림집문제를 제일먼저 해결한 나라로 될수 있다. …

마디마디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으로 일관된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흘러들었다.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의 귀전에 경애하는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간곡한 당부가 되여 울리고있었다.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결심을 하나하나 책임적으로 내려야 한다!

□ 백두산기슭에 펼쳐진 산간도시에도

이 땅에 생의 뿌리를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언제나 그 어디서나 심장에 안고 사는 조종의 산 백두산!

바로 이 백두산기슭의 삼지연땅에 찾아오는 사람들모두가 경탄하는 독특한 산간문화도시가 눈부시게 펼쳐졌거니 그 눈부신 전변에 새겨진 절세위인의 자욱자욱은 그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인민과 함께라면

인민을 위한 고생을 직업으로 여기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민, 가장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멸사복무의 길만을 걷고걸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경애하는 그이의 심중에는 언제나 인민, 인민이 자리잡고있다.

주체107(2018)년 8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삼지연군(당시)을 찾으시여 건설장전역을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오르시였다.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대건설전투가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그때 백두산기슭아래 삼지연땅에서의 건설장은 그야말로 온 나라의 마음과 마음들이 달려와 그것이 그대로 건축물의 뼈대가 되고 지붕이 되여가는 이 나라 민심의 축도라고 할수 있었다.

얼마나 훌륭한 인민인가.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결하고 뜨거운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들끓는 건설장의 전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우리는 정말 좋은 인민과 위대한 시대를 앞당겨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저렇듯 훌륭한 인민과 함께라면 이 세상 그 어디라도 두렴없이 갈것이다. …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절세위인의 심장의 토로에 접하여 동행한 일군들이 격정에 휩싸였다.

저렇듯 훌륭한 인민과 함께라면!

이는 그대로 위민헌신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절대의 믿음이였고 투쟁의 신념이였으며 승리에 대한 확신이였다.

위대한 심장속에 인민을 그토록 소중히 안고계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다 결심하시는것이며 무슨 일에서나 불가능을 모르시는것이다.

사랑하는 인민, 이 세상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인민에 대한 철석의 믿음을 안으시고 오늘도 력사의 광풍을 맞받아 힘차게 나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심장으로 웨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천지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인민은 언제나 이깁니다!

인민들의 살림집이 기본이다

삼지연군(당시)을 산간문화도시의 표본으로, 사회주의리상향으로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곳의 건설장을 찾으실 때마다 중시하시는것이 있다.

그이께서 2018년, 이해에 세번째로 삼지연군을 찾아오신 10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정중히 올리는 인사를 받으시며 삼지연군 읍전경을 부감하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서 건설장을 돌아보자고 하시며 살림집건설정형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당시 군에서는 원래 살던 주민수를 타산하여 세대수를 정하고 살림집건설을 진행하고있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원수님께서는 삼지연군 읍지구에 살림집

을 넉넉히 건설하여야 한다고, 이제 읍지구에 호텔들과 관광시설들이 많이 건설되면 종업원들이 많아지게 되고 세대수가 원래 계획하였던것보다 더 늘어날것이라고 하시면서 늘어날 세대수까지 충분히 타산하여 살림집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느덧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일행이 백두산혁명전적지관리소건물을 가까이하고있었다.

이때 군의 책임일군이 그이께 백두산혁명전적지관리소건물을 보아주실데 대한 청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일군의 청을 받으시고 동행한 일군들에게 백두산혁명전적지관리소건물을 보아달라고 하는데 인민들이 쓰고살 살림집부터 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삼지연군꾸리기에서 기본은 인민들이 쓰고살 살림집을 손색없이 꾸리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삼지연군꾸리기를 하는 목적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 호텔이나 잘 꾸리고 거리나 멋있게 형성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삼지연군인민들이 희한한 살림집에서 살게 하자는데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삼지연군꾸리기를 하고있는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자자구구 받아안으며 삼지연군건설에서 인민들이 쓰고살 살림집건설이 기본이라는 그이의 뜻과 구상을 다시한번 새기였다.

살림집의 구석구석에도

2018년 10월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여가는 삼지연군 읍지구건설장을 바라보시며 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살림집구역의 어느한 아빠트를 돌아보실 때이다.

아빠트외부를 세세히 살펴보시는 그이께 일군이 살림집들에 끼운 유리가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 생산한것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의 말에 수긍하시며 현관을 지나 복도계단을 오르시였다. 그러시며 벽체를 손으로 만져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연록색을 바른 벽체의 중간쯤에 장식띠를 만들고 거기에 물뺑끼를 칠한것을 보시고 일군에게 모든 살림집들의 허리벽에도 이렇게 물뺑끼를 칠하게 되여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모든 살림집들의 허리벽에도 물뺑끼를 칠하는것으로 되여있다고 보고드리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시며 1층계단을 오르시던 원수님께서 어느 한곳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계단을 따라 올라오는 일군들을 보시며 계단을 오르면서 보니 마지막계단이 다른 계단보다 좀 높아졌다고, 그러다보니 계단을 오르면서 여러 사람들이 계단에 발이 걸리였다고 하시면서 계단시공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상할수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 읍지구에 새로 지은 살림집들의 내부마감공사가 한창 진행되고있는데 이 계단처럼 시공이 잘되지 않은 부분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구석진 부분들까지 손색없이 잘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사실 누구도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서 계단에 발이 걸린것을 두고 자기 불찰이라고 생각했지 계단의 높이차이가 있어 걸렸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인민들이 살게 될 살림집에 사소한 부족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누구도 느끼지 못한 계단의 높이차를 가려보신것이다.

계속하여 살림방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세대당 면적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이만하면 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을것이라고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다가 바닥에 깔아놓은 레자의 이음선부분에 구김살이 가고 굽도리의 마감부분이 약간 들린것을 보시고 바닥에 레자를 잘 깔지 못했다고, 신발장을 놓을 자리에 깐 레자가 파도치는것처럼 보이는데 레자가 구부러진 부분을 모두 수정해야 한다고 나타난 부족점들을 일일이 지적하시였다.

그러시고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살림방의 굽도리를 어떻게 처리하

겠는가에 대한 방도적인 문제들도 설명해주시면서 굽도리까지 멋있게 처리하면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얼굴이 모두 상기되여있었다.

복도의 계단높이며 살림방바닥에 깐 레자, 굽도리처리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요소들에도 크게 관심하시며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모습은 세간난 자식들의 살림집을 찾아 걱정해주는 친부모의 모습 그대로였다.

인민들이 살게 될 살림집의 구석구석에도 뜨거운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며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인민의 어버이 **김정은**원수님.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심장은 끝없는 경모의 정으로 불타올랐다.

기념사진에 담으신 뜻

삼지연시당위원회의 일군들이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사는 한상의 뜻깊은 기념사진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 일군들과 함께 찍으신 기념사진이다.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삼지연군(당시)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삼지연군당위원회 일군들과 기념사진을 찍자고 한다고 하시면서 귀중한 시간을 바쳐 그들을 기다려주시였다.

삼지연땅이 생겨 군당의 일군들, 아니 군안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처음 접하게 되는 영광의 시각이였다. 당사자들은 이 놀라운 현실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듯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굳어져버렸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것은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벅찬 현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군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앞에서 군당위원회 일군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

을 찍으시였다.

그때까지 일군들은 다 알수 없었다.

어찌하여 그이께서 이렇듯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는지.

기념촬영이 끝났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군당위원회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의도를 잘 알아야 한다고,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당위원회 일군들이 일을 책임적으로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당부하시였다.

자신께서는 삼지연군당위원회 일군들이 참된 인민의 충복이 되기 바란다고.

격정에 휩싸이며 그이를 우러르는 군당일군들의 심장이 세차게 고동쳤다.

(인민의 충복! 영원히 그렇게 살며 일하라고 그처럼 분망하심에도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며 기념사진을 찍어주신것 아니랴.)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에서 일하는 일군들이 누구보다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충복이 될데 대한 하늘같은 믿음을 받아안은 일군들의 감격은 실로 이를데없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일군들에게 동무들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인민을 우리 장군님처럼 생각하고 받들어야 한다고, 삼지연군당위원회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박은 군당위원회가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군당의 일군들은 다시금 새기였다.

사랑의 기념사진에 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귀중한 밑거름

2019년 10월 삼지연군(당시)안의 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몰라보게 변모된 읍전경을 바라보시며 2단계공사 진행정형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도시를 방불케 하는 읍지구의 모든 건축물들은 백두의 천연수림

과 어울리면서도 현대미를 잘 살리며 건설되여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었다.

그처럼 짧은 기간에 그처럼 눈부신 전변을 가져온 삼지연군건설은 설계와 시공, 자재보장과 로력배치, 건축물의 질과 건설속도 등 모든 면에서 참으로 많은 경험과 교훈을 축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 건설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확신에 넘친 어조로 삼지연군건설이라는 거창한 창조대전을 통하여 지방건설의 교과서적인 경험과 교훈을 쌓았으며 우리 당의 지방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귀중한 밑거름, 하나의 혁명적도약대가 마련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시범적이며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건설대전들을 계속 다그쳐 우리 나라 전반지역에서의 지방건설을 주체적건축미학사상에 준하여 자기 지대의 특색을 잘 살리며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귀중한 밑거름!

일군들의 가슴은 설레이였다. 백두산기슭의 산간지역인 여기 삼지연땅에 지방건설의 든든한 밑천으로, 귀중한 밑거름으로 될수 있는 풍부한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아주시기 위해 경애하는 그이께서 기울이신 심혈과 로고가 뜨겁게 어려와 눈시울을 적시였다.

그들의 얼굴마다엔 환희가 넘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지방건설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그리고 그이의 령도밑에 마련된 귀중한 밑거름을 토대로 하여 온 나라 그 어디나 몰라보게 전변될 래일이 벌써부터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아서였다.

□ 타일지함도 들어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3(2014)년 8월 어느날 삼복철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천리마타일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종업원들의 일솜씨에 대하여 치하해주시며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한 공정앞에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타일포장작업을 진행하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지켜보시였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수십kg이나 되는 타일지함을 들어보시였다. 로동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려는것이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공장일군들의 눈굽은 쩌릿이 젖어들었다.

매일이다싶이 생산현장을 오가던 그들이였지만 과연 어느 누가 무거운 타일지함을 직접 들어보며 로동자들의 수고를 세세히 가늠해본적 있었던가.

로동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그이이시였기에 그들이 늘 들군 하는 타일지함의 무게도 자신께서 직접 가늠해보시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것이였다.

사실 그이께서 공장을 돌아보신 시간은 하루중 기온이 제일 높은 시간이여서 그냥 그늘에 앉아있어도 땀방울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때였다.

그러나 그 자연의 폭열도 온 나라 인민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헌신의 열도보다는 뜨겁지 못하였다.

타일지함을 들어보시는 그이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크나큰 격정속에 우러르며 심장을 쿵 울리는 무언의 가르치심을 새겨안았다.

모든 작업을 기계화, 자동화하여 로동자들이 로동을 흥겹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것을.

일군들은 로동자들에게 더욱 훌륭한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마련

해줌으로써 그들이 생산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해나가도록 할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 제품의 상표 하나에도

주체104(2015)년 7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꿎게 내리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한 공장을 찾으시였다.

어느한 제품을 유심히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상표가 문화적이면서도 친절하게 되지 못하였다고, 상표글자의 서체도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제품의 상표를 다시금 눈여겨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원수님께서는 상표는 우리 인민의 미감과 정서에 맞게 고상하면서도 문화성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시며 상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전국적판도에서 생산되는 제품들가운데서 질은 괜찮지만 포장과 상표가 응당한 높이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는 실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영양가높고 맛있는 음식도 눈맛이 있어야 빛이 나는것처럼 쓸모있고 질좋은 제품도 포장과 상표가 멋있어야 그 품위가 높아진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새겨안을수록 일군들은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제품을 더 많이, 더 질좋게 만들어내기만 하면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는것으로 여겨오면서 사용자들의 심리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얼굴과도 같은 상표도안을 훌륭히 완성하는데는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사업태도가 돌이켜졌기때문이였다.

인민들이 리용하는것이라면 제품은 물론 상표까지도 우리 식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여야 하며 그 길에서는 만족을 몰라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였다.

□ 인민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10월 어느날 큰물피해를 가시고 사회주의선경마을로 훌륭히 일떠선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당시)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에 도착하시여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다가 문득 라선시책임일군들이 다 어디에 갔는가고 물으시였다.

당창건 일흔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침 렬차로 평양을 향해 출발하였다는 보고를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그들이 도중역에서 내려 돌아오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당창건 일흔돐 경축행사에 좀 늦게 참가하더라도 인민들이 새집에 입사하는것을 봐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끝냈다는 보고를 받고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자신께서 먼저 돌아보아야 마음이 놓일것같아 찾아왔다고, 오늘 여기로 오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새집들이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이 본래집들보다 좋은가, 구들에 불이 잘 드는가, 물은 잘 나오는가를 세심히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모든 살림집들을 인민들이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훌륭한 보금자리로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하는 자기들에게 당에서 TV를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을 선물로 보내준데 대하여 격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데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살림집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황홀하다고, 기쁜 일이면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으며 보람이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인민들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세상만사중에서도 나라의 근본인 인민, 자신의 피와 살점으로 여기시는 인민을 위한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간주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경애하는 그이는 인민의 기쁨에서 혁명하는 멋도, 보람도 찾으시고 생의 가장 큰 희열도 느끼시며 멸사복무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숭고한 인민관의 체현자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 스쳐지나지 않으신 문제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시에 새로 건설한 상점을 돌아보시던 때에 있은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무용품매대에 이르시자 걸음을 멈추시였다.

거기에는 학습장, 수첩, 필기도구를 비롯하여 각종 사무용품들이 진렬되여있었다.

한동안 그 모든것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매대로 다가가시더니 4색원주필을 하나 꺼내드시였다.

이윽하여 원주필이 사무를 보기에 편리한가를 가늠해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엇인가 찾으시는듯 주위를 둘러보시였다. 원주필이 잘 써지는가 알아보시려는것이였다. 그런데 매대에는 원주필을 써볼만한 종이가 없었다.

한 일군이 급기야 진렬대에 있던 학습장 한권을 꺼내서 탁우에 놓아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더니 사무용품매대에서 필기도구들을 팔아주는것만큼 손님들이 그것을 써볼수 있도록 종이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그래야 손님들이 필기도구를 써보고 마음에 드는것을 살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후더워올랐다. 인민들의 편의를 위해 늘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스쳐지나지 않으시고 일일이 가르쳐주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자그마한 부족점도 없이 완전무결해야 한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 자정이 가까와올무렵까지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7(2018)년 6월 어느날 신의주화장품공장을 찾으시였다.

《봄향기》화장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신의주화장품공장에 언제부터 한번 와보고싶었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부터 시작하여 공장의 여러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 제품견본실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원수님의 안광에 환하신 미소가 어리였다.

기초화장품, 남자용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치료용화장품 등 각양각색의 화장품들과 3.8절기념품, 결혼기념품, 어머니날기념품과 같이 첫눈에도 마음을 끄는 화장품세트들이 이채롭게 진렬되여있는 제품견본실은 하나의 화원을 방불케 하였던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진렬대를 따라 걸음을 옮기시면서 제품견본실을 잘 꾸렸다고, 제품견본실에 전시되여있는 화장품들을 보기만 하여도 흐뭇하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이윽고 살결물을 전시한 진렬대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남자용살결물통에서 면도후살결물 한통을 꺼내여 손에 바르시고 냄새도 맡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향내도 괜찮고 포장도 보기 좋게 잘하였다고, 살결물을 발라보니 괜찮다고 하시며 살결물을 바르면 이렇게 피부가 거뜬한 느낌이 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날 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공장을 돌아보았던 당중앙위원회 한 일군은 그이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낮에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제품견본실에서 보시였던 남자용살결물에 대해 또다시 말씀하시며 잘 만들었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일군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시계를 바라보니 어느덧 자정이 가까와오고있었던것이였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냄새와 느낌등이 처음 사용했을 때와 다름이 없을 때 좋은 제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니 그이께서는 공장을 떠나신 때로부터 여러시간이 흐르도록, 자정이 가까와올무렵까지도 제품의 질적수준을 줄곧 가늠하고계신것이 아닌가.

일군의 가슴은 불을 안은듯 뜨거워졌다.

한 나라의 령도자께서 평범한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새 제품의 질을 여러시간에 걸쳐 직접 가늠해보신 이런 감명깊은 이야기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 《결방살이》하는 《주인》

례년에 없는 고온현상으로 몹시도 무더웠던 몇해전 7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석막대서양련어종어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눈뿌리가 아득하게 펼쳐진 양어못들이며 아담하게 일떠선 건물들이 한데 어울려 선경을 펼친 종어장을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을 찾으신데 이어 련어들이 꽉 차있는 야외양어못들을 만족스럽게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산소발생장으로 가실 때였다.

퇴수로를 가로지른 자그마한 다리를 건느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다리밑으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퇴수로에서 욱실거리는 물고기떼를 자세히 보시며 칠색송어가 아닌가고 물으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동행하던 종어장의 일군은 칠색송어가 옳다고 말씀올렸다.

퇴수로의 물살이 여간 빠르지 않았는데 칠색송어들이 떼를 지어 헤염치는 광경은 볼수록 장관이였다.

칠색송어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가고 하시는 그이의 물으심에 종어장의 일군은 련어의 마리수가 늘어나 하는수없이 칠색송어를 퇴수로에서 기르고있다고 사실대로 말씀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희한하다고, 고급어족인 칠색송어를 퇴수로에서 기르는것은 처음 본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난 시기에는 련어가 적어 칠색송어를 양어못들에서 길렀지만 지금은 련어의 마리수가 늘어나 퇴수로에서 기른다고 하는데 어제날의 《주인》이 오늘은 《결방살이》를 하고있다고, 칠색송어가 퇴수로에 나와 《결방살이》를 하는것은 이곳 종어장에서만 볼수 있는 희한한 풍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결방살이》하는 어제날의 《주인》!

종어장의 눈부신 전변을 명쾌하게 반영한 그이의 통속적인 말씀에 동행하던 일군들은 어려움도 잊고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예로부터 돌로 지은 막들이 많고 사람 못살 막바지골안이라 하여 석막이라 불리운 한적한 땅에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10년세월이 흘러 이렇듯 고급어족인 칠색송어도 퇴수로에서 기르는 련어양어의 새력사가 펼쳐진 가슴벅찬 현실.

이것이야말로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이 낳은 또 하나의 전설이 아니던가.

□ 중요한 평가기준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의 자욱은 삼지연땅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삼지연군(당시)을 찾으시여 군꾸리기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육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고귀한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도의 한 일군이 경애하는 그이께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혜산교원대학을 일신하려고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도들에서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재는 나라의 재부인 동시에 도, 시, 군의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후대교육사업을 농사에 비유하면 인재농사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감자농사만 과학화, 집약화할것이 아니라 인재농사도 과학화, 집약화하여 도들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도들에서는 교원대학의 교원양성체계를 과학화, 정보화하고 독창성과 주체성이 구현된 선진교육방법을 받아들여 우수한 교원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기들이 교육사업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돌려왔는가, 후대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 얼마나 품을 들였던가를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는 그들에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해당 지방당조직들이 군들의 소학교, 중학교들에서 기초교육을 한단계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들에서 교육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도안의 전반적인 교육기관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은 도에서

틀어쥐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도들을 평가할 때 교육사업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교육사업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바로 여기에 모든 지역들에서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교육발전에 큰 힘을 넣도록 함으로써 나라의 전반적교육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고 조국의 미래를 훌륭히 담보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지가 깃들어있는것 아니던가.

그이의 가르치심을 자자구구 심장에 새기며 일군들은 마음속으로 굳게 결의다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교육사업을 최대로 중시하고 거기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단단히 자극을 받아야 한다

주체107(2018)년 8월 어느날.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잠든 깊은 밤 새로 만든 궤도전차의 시운전을 지도해주시려 현지에 나오시였다.

그이를 맞이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환희와 격정에 휩싸였다. 인민을 위해 끊임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흠모의 마음이 세차게 끓어넘쳤다.

시운전이 시작되고 궤도전차가 시내로선을 따라 경쾌하게 달릴 때였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새형의 궤도전차를 만들어 송산궤도전차사업소로 옮겨갈 때 인민들이 우리가 자체로 만든 궤도전차인가고 물어보면서 너무 좋아 박수를 쳤다는 사실을 기쁨속에 말씀드리였다.

그 말에 동행한 일군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였다.

일군의 말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인민들이 교통문제가 풀릴 날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있으면 시

험운행하는 궤도전차를 보고 박수까지 다 쳤겠는가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일군들은 인민들이 새형의 궤도전차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하였다는 사실에서 단단히 자극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삼복철과 겨울철에 정류소에서 이제나저제나 무궤도전차나 궤도전차를 안타까이 기다려본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그렇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저도 모르게 머리가 숙어졌다.

무슨 일을 하나 보고 대하여도 인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보고 그들의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던것이다.

단단히 자극을 받아야 한다!

인민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였다는 사실에서 단단히 자극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인민을 위하여 뛰고 또 뛰면서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을 찾으신 주체106(2017)년 6월 어느날이였다.

아담하고 정갈한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멋쟁이공장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이윽고 공장의 생산공정들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며 그이께서는 함수액이 담겨진 용기들이 건조기에 들어갔다가 자동적으로 상표가 붙여진 다음 열수축포장 또는 지함포장되는것이 볼만하다고, 제품들의 질도 괜찮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어 공장에서 생산하는 치약들도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치약의 상표도 국제적기준에 맞게 표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어른용치약과 어린이용치약에 들어있는 불화물의 함유량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치약에 불화물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하는것도 꼭 표기해주어야 한다고 부

족점들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그들이 리용하는 치과위생용품에 자그마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에서 일군들은 위대한 어버이의 웅심깊은 사랑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생용, 치료용으로 리용할수 있는 여러가지 치약과 함수약, 이몸과 이발형태에 따르는 치솔을 비롯한 치과위생용품의 가지수를 더 많이 늘일데 대한 문제, 치과위생용품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과학자, 기술자들로 연구집단을 튼튼히 꾸리고 조건보장을 잘해줄데 대한 문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원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등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공장의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다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만족하신 시선으로 둘러보시며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기분이 정말 좋다고, 이제는 우리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질좋은 치과위생용품을 안겨주려던 소원이 풀리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

일군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이 그이께 있어서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였기에, 치과위생용품공장건설이 인민을 위한 참으로 보람있는 일이였기에 경애하는 그이께서 치과위생용품공장을 그처럼 대단히 중시하시는것 아니랴.

돌이켜보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건설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고 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현대적인 치과위생용품생산설비들까지 일식으로 마련해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치과위생용품공장은 당에서 인민들과 약속한 공장이라고 하시며 이 공장은 당에서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건설한 공장이지 선전이나 하자는 공장이 아니라고, 그런것만큼 공장을 조업한 다음에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단히 중시하시는 공장인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은 년간 수천만개의 치약, 함수약, 각종 치과위생도구들을 생산해내면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 밀차도 밀어보시며

몇년전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시에 있는 한 상점을 찾으시였다.

상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그 운영과 봉사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류매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갖가지 과자, 사탕, 빵을 비롯한 당과류들이 가득 쌓여있는 진렬장들, 매대앞에 놓여있는 손님용밀차들…

보기만 해도 흐뭇한 광경에 동행한 일군들은 눈길을 뗄줄 몰랐다.

이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한대의 밀차를 끌고 매대안으로 들어서시는것이였다.

한 일군이 황급히 밀차를 넘겨받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도 과자를 밀차에 담아가지고 가겠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이 과자를 샀다고 하여 이것이 제일 좋은 과자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은 웃음을 터뜨리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상품들이 쌓여있는 진렬장들사이로 밀차를 미시며 그것을 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가를 몸소 가늠해보시였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그이께서 왜 몸소 밀차를 미시며 매장에 들어서시였는지 그 의도를 깨닫게 되였다.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 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다심한 마음으로 몸소 밀차도 밀어보시고 봉사활동에서 어느 한 구석도 미흡

한 점이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 감자가루가 폭포되여 쏟아지는 곳에서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시려 끊임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건설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이곳에 깃든 절세위인의 무한한 헌신의 세계는 오늘도 만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더없이 만족해하신 풍경

주체108(2019)년 4월 또다시 삼지연군(당시)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에 도착하시여 마중나온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신 그이께서는 오늘은 감자가루가공품생산공정부터 돌아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일군의 안내를 받으시며 감자가루가공품생산직장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에게 지금 설비조립이 어느 정도 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당시 공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감자바삭과자와 감자편튀기, 감자꽈배기, 감자국수, 감자우동, 감자영양쌀 등을 생산하는 설비들을 조립하고 시험생산준비를 다그치고있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직 감자가루의 유익성에 대하여 잘 모르고있다고, 그에 대한 소개선전사업을 잘하면 수요자가 늘어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원래 감자하면 사람들이 농마부터 생각하는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감자로 농마를 생산하는것은 생산원가와 실수률을 따져볼 때 큰 랑비였다.

감자로 농마가루를 만들면 실수률이 10%밖에 되지 않지만 감자

가루를 만들면 실수률이 그 이상 올라가게 된다.

감자를 가지고 감자가루를 생산하는것은 감자밭 한정보에서 강냉이를 30t 생산하는것과 맞먹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일군들과 함께 감자가루가공품생산현장을 살펴보시였다.

생산현장에는 감자꽈배기생산공정과 밀폐식, 흐름식으로 길게 련결된 감자바삭과자와 감자편튀기설비들이 놓여있었다.

그이께서는 공장일군들에게서 감자가공품생산정형을 료해하신 다음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고 생산공정이 하나의 종합적인 식료공장같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어 감자국수와 감자영양쌀생산현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맞은켠에 있는 감자가루창고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창고에는 공장에서 생산한 감자가루가 천수백여t이나 쌓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자가루창고에 들어서시여 천정을 찌를듯 높이 쌓여있는 감자가루포대들을 보니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흐뭇하다고, 정말 멋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어제는 감자창고에 그득히 쌓아놓았던 감자들을 보시며 너무도 기쁘시여 흙이 묻어나는 감자무지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더니 오늘은 그 감자무지가 감자가루포대로 변하여 천정이 모자라게 쌓여있는것을 보시며 더없이 만족해하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솟구쳐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감자가루포대가 산처럼 쌓여져있는 저 풍경을 보시며 더없이 만족해하시는 원수님! 풍성해질 인민들의 식탁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였으면 그렇게도 기뻐하시는것인가.)

겹쌓인 피로는 묻어두시고 인민들에게 맛좋은 감자가공품을 안겨주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감자가루가 가득 쌓여있는 창고의 풍경을 커다란 만족속에 바라보시는 그이를 뵈옵는 일군들은 격정으로 목이 메여올랐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의 행복이 커가는데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선별공의 의자

감자가루생산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감자가루생산현장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돌아가는 기대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감자선별대앞에서 선별공들이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한없는 기쁨속에 바라보시는것이였다. 이윽고 선별공에게 다가가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의자가 낮지 않은가고 물으시였다. 낮지 않다는 대답을 들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다시 앉아보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범한 선별공의 의자를 두고 그처럼 기뻐하시는 사연을 잘 아는 그들이였기때문이다.

사실 전해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까지만 하여도 감자선별대앞에는 의자가 없었다. 그런데 너무도 응당한것으로 여긴 그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걱정을 끼쳐드릴줄이야…

그날 공장의 여러 공정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자선별공정앞에 이르시여 걸음을 멈추시고 로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시였다.

(무엇때문일가?)

일군들은 영문을 알수 없어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러는 일군들을 뒤에 두고 선별대로 다가가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선별공에게 힘들지 않은가고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힘들지 않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왜 힘들지 않겠는가, 8시간을 서서 일하자니 힘들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영문을 깨달았다. 선별공정에서 로동자들이 서서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걸리시였으면 경애하는 원수님 가시던 걸음을 멈추신것이랴.

참으로 가슴뜨거운 화폭이였다. 사실 그때까지 많은 일군들이 공장을 다녀갔어도 누구도 눈여겨보지 못한 선별공들의 서서 일하는 모습이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은 그 모습을 스쳐보내지 않으신것이다.

번쩍이는 설비나 쏟아지는 제품에 앞서 그이의 눈길은 로동자들의 모습을 더듬고계시였고 그들의 수고를 헤아리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저희들이 뭐라고…)

로동자들은 격정에 흐느끼였다. 일군들의 자책감도 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선별대앞에는 의자들이 놓여지고 선별공들이 앉아서 일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해에 보시였던 바로 그 광경을 잊지 않으시고 이날 또다시 선별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로동자들이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그리도 기쁘게 바라보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영상을 우러르는 모두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격정이 솟구쳐올랐다.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올해에도 정초부터 외국방문의 길을 이으시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고 또다시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이곳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그이이시였다.

하지만 자신의 고생은 다 묻어두시고 오로지 인민을 위하시며 평범한 로동자들의 수고까지 그처럼 깊이 헤아리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진정 세상에 경애하는 원수님 같으신분이 또 어디 계시랴.

일군들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높뛰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선별공정을 뒤돌아보시며 로동자들이 앉아 일하는것이 아주 멋있다고 다시금 기쁨속에 뇌이시였다.

수수한 선별공의 의자였다. 하지만 거기에 어린 사연은 정녕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언제나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이 나라 인민모두를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세계를 평범한 선별공의 의자도 가슴후덥게 전하고 있는것이다.

일화로 보는 위인상 6

집 필　한 영 수, 림 경 호
편 성　송 경 희　장 정　김 윤 일
교 정　주 설 미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1(2022)년 10월 26일
발 행　주체111(2022)년 10월 30일

ㄱ－1552ㄷ

ISBN 978－9946－31－161－6

ISBN 978-9946-31-161-6